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주체101 (2012)년 12월 12일
9시 59분 13초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



과학기술강선

1
주체102
2013

불타는 소원

절절한 감정으로 (♩=70)

작사 황성하
작곡 정춘일

mp A^b F^m B^b_m/D^b B^b₇ E^b

1.이 한밤도 먼 길가실 원수님 - 생 - 각 하 며

A^b F^m D^b E^b A^b *mf*

우 리마 음 자 옥자옥 간절히 - 따라섭니 다 - 우리운

A^b F^m B^b_m B^b₇ E^b

명 - 우리 행 복 원수님 께 달려있기 에 - 아 침 지

A^b C^b/G D^b A^b/E^b E^b A^b

너 - 소원은 하 나 원수님 의 안녕입니 다

2.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을 이어주시며
인민위한 한길만을 언제나 걸으십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천만자식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3. 친근하신 그이 모셔 강산은 따뜻하고
영명하신 그이 계서 미래는 창창합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하늘땅도 소원하는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금수강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13
ISSN 1727-9062

주체102(2013)년 1호(루계 제281호) 월간

차 례

그이는 진정한 애국자	3
일 화	
값높은 칭호	4
장군님의 인민관	9
방문기	
《꼭 꿈만 같습니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상월선생	12
혁명승리를 위한 만능의 보검	14
청년문제를 해결하시어	15
해해를 축하합니다	16
례의도덕과 우리 민족	17
조국의 품에 안겨	
애국의 길	18
시아밖의 김은국	20
익실한 일군	22
두 제도에 비낀 청년들의 모습	24
김형직사범대학	25
통일거리 운동센터	28
애국의 마음피어난 대동강학살	30
평양승강기합영회사	33

편 지

보고싶은 큰어머니에게 35

고향소식

살기좋은 고향 36

미재를 향하여 38

삼가 인사를 드린다 39

인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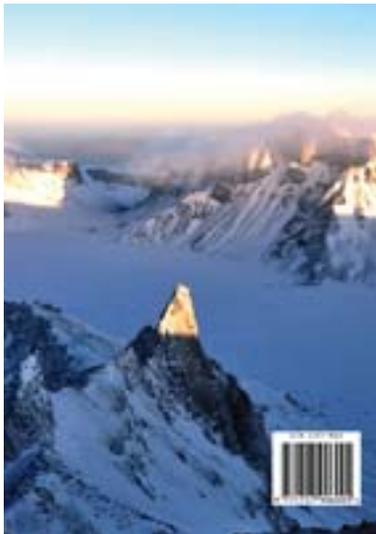
우리의 마음은 하나 40



표 지: 조선 우주를 날다

뒤표지: 백두산

사진: 본사기자 김진호



수 기

큰절을 올렸던 감격을 잊을수 없습니다 41

인상기

내가 서보고싶은 곳 42

잊지 못할 유희장에서의 하루 43

애국의 마음을 합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44

돈보인 무사 46

고려의 명의 설경성 47

민족의 향기

어린이들이 즐기는 팽이치기놀이 48

김시습의 총명 48

고국방문 50

참관기

력사의 증견자앞에서 52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뿌리 54

서민은 《빛더미》, 재벌은 《돈더미》를 낳은 기간 55

일본의 왜왕재복귀책동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56

상 식

유엔인구기금 19

무두를 리동한 고려치료방법 21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양력을 쓰기 시작하였는가 47

조선속담 45

유모아

력사는 외풍이 37

그이는 진정한 애국자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을 보느라니 참으로 생각이 깊어진다.

조국땅에 이렇게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지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창전거리, 인민극장, 룡라곱 등어관, 평양민속공원...

선군조선에 펼쳐진 새 모습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펼쳐질수 있었다는것이 내가 이번에 받아안은 느낌이다.

조국방문의 나날에 나는 원수님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겁고도 열렬한 사랑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을 더잘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었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그대로 지니고계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것을 내가 만난 조국인민들과 조국땅에 펼쳐진 현실을 통하여 알수 있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그분의 천품이며 그것은 깊고도 억센 뿌리를 가지고있다.

원수님께서 지니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은 만경대가문의 애국혈통을 그대로 이으시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애국의 사상과 정신을 체현해나가시는 나날에 형성되고 심화발전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유년시절 자신의 손으로 구멍이를 파고 나무를 심은 다음에는 물도 길어다 주시면서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품에 안아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애국의 마음을 키우시였다. 또 바람부는 길가에 서시여 멀리 현지지

도의 길에서 돌아오실 장군님을 동이 트도록 기다리시던 날들에 애국의 참뜻을 심장에 깊이 새기시였다.

그리고 겹쌓인 시련과 난관속에서 붉은기를 지키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겪으며 조국과 인민의 귀중함을 더 깊이 느끼시였고 그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량심으로, 생의 전부로 간직하시였다.

지난 1년간을 통하여 나는 원수님께서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로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고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고계신다는것을 폐부로 절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시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해외동포들은 아니 온 민족은 수령에 대한 충정을 가장 고결한 량심으로 지니신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을 보았다.

잊을수 없는 피눈물의 12월에 조선의 운명을 떠맡아안으신 원수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모든것을 시작하고 이끌어오시였다.

원수님께서 후대들에게 기울이시는 사랑은 그이께서 인민에 대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계시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돛경축행사에서 뜻깊은 축하연설도 해주시고 장재도의 갓 태어난 아기의



볼을 다독여주시며 품에 안아주시였고 새집들이한 평범한 로동자의 집에 들리시어서는 어린 소년에게 그림을 완성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다정히 가르쳐주시는 원수님의 모습은 우리 민족의 밝은 앞날을 가꾸어가시는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축도였다.

이번에 조국에 와서 내가 느낀것은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은 숭고한 애국헌신으로 우리 민족의 강성번영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이다.

선군은 최고의 존엄이고 자주이며 최대의 애국이다.

원수님께서는 피눈물속에 맞이한 새해 첫날아침에도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고 조국땅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오는 준엄한 시각에도 최전방에 계시였다. 그이께서 헤쳐가신 길에는 철령너머의 최전연초소들도 있고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

는 판문점도 있었으며 자그마한 목선을 타고 찾으신 서남전선의 최전방부대들인 장재도와 무도의 방어대들도 있었다. 그이께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던 자그마한 섬초소에 영웅의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고 우리 민족이 것처럼 고대하는 조국통일대전의 최후공격작전 계획에 최종수표해주시며 전군에 최후승리를 위한 명령을 하달하시었다는 소식에 우리들은 또 한분의 백두령장을 모신 환희에 가슴을 들먹이였다.

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열병식광장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기어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안아오시려는 그

분의 고귀한 애국헌신의 의지를 읽었다.

원수님의 고결한 헌신의 세계는 받아보시는 편지들에 써 주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합시다!》라는 글밭에도 새겨져있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라고 하신 간곡한 당부에도 담겨져있다.

그이께서는 모래바람이 불어치는 룡라인민유원지건설장에서 손수 수첩에 그림까지 그려가시면서 훌륭함에 완벽함을 더해주시였고 만경대유회장에 돌아난 잡초를 한포기한포기 몸소 뽑으시며 일군들에게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똑바로 간직하도록 절절히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정녕 이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은 도덕으로, 량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인생의 고귀한 진리를 새겨준다.

애국으로 사색하시고 애국으로 실천하시며 애국으로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는 조국의 모든 인민을 애국의 인간들로 역세계 키워가고있으며 조국땅우에 거창한 기념비들을 일떠세우고있다.

참으로 우리의 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겁고도 열렬한 사랑, 숭고한 애국으로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시작하시였으며 조국통일과 강성국가건설 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절세의 애국자, 우리 민족의 진정한 애국자이시다.

그이이시야말로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참다운 애국자이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 조용환

군무생활의 하루가 레사롭게 흐르던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인 조국의 섬, 장재도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찾아오시였다.

사선을 헤치시며 작고 수수한 목선을 타시고 오신 원수님께서 바다물에 옷자락을 적시며 자기들의 섬에 오르시였을 때 병사들은 너무 억이 막혀 눈물을 비오듯 쏟았다.

그이께서 와락 달려가 마냥 일화
매여달리는 병사들과 군인가
족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환한
미소를 보내시는 원수님의 모습은 정녕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군인들의 부대생활에 대하여 세심히 보살펴 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섬에 있다고 절대로 외로워하지 말라고, 장재도는 물에서 멀리 떨어져있지만 혁명의 진지이며 군인들의 삶은 당의 피출과 이어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원수님께서서는 방어대군인들의 하루하루는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애국의 하루하루라고 하시면서 외진 섬에서

누가 보건말건 조국이 맡겨준 초소를 지켜가는 군인들은 모두가 혁명가, 애국자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애국자, 이것은 그 누구나 쉽게 받아안을수 있는 부름이 아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 말건 자기의 성실한 피와 땀을 묵묵히 바쳐가는 사람, 오직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가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해나서는 사람

들에게 주는 값높은 칭호이다.

조국의 방선을 지켜가고있는 병사들의 위훈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여 우리 군인들은 최상최대의 믿음을 받아안을수 있을것이다.

오늘 장재도의 군인들뿐아니라 이 땅의 모든 병사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한몸을 불태워가시는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애국의 참된 삶을 끝없이 빛내여가고있다.

값높은 칭호



인민무력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부인 리설주동지



그이는 진정한 애국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능력확장된 대동강타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새로 완공된 룡라인민유원지 준공식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부인 리설주동지



새로 건설된 창전거리살림집에 입사한 평양기계대학 교원인 심동수의 가정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부인 리설주동지



경상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에 참가한 학생
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청년절경축대회에 참가한 동포청년들을 뜨겁게 포옹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장군님의 인민관

김정일애국주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가장 존엄있게 대하는 투철한 인민관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에 그 바탕을 두고있습니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신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은 그이께서 한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여오신 이민위천의 리념에 집대성되어있다. 그이께서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복종시키시며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로 혁명생애의 수십성상을 수놓아 오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은 우선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시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인민에 대한 존중이며 인민에 대한 존중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대한 존중에서 나타난다.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을 세상에 서 가장 현명한 스승으로, 지혜로운 존재로 여기시면서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시였다. 그이께서 늘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들속에 들어가시는것도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알기 위해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며 정책 하나를 세우도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기준으로 삼으시였으며 그것을 집행할 때에도 인민의 의견부터 물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을 위해 취해지는 당과 국가의 혜택에 대한 보고를 받으실 때마다 《인민들이 좋아하오?》라고 물으시며 인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이 있다는것을 아실 때에는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소.》라고 말씀하곤 하시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다.

하기에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이 바라고 요구하는것이라면 어김없이 현실로 펼쳐시켰고 인민들과 한 약속은 곧 법으로 간주하시고 꼭꼭 지키곤 하시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대한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존중, 이것이 그이의 체질화된 품성이였다. 인민의 령도자로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사랑의 숭고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은 또한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장군님은 인민을 제일로 존대하고 내세울뿐아니라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숭고한 인민적품모를 지니고계시였다.

인민에 대한 참된 사랑은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

로 복무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을 가장 큰 락으로, 기쁨으로 여기시며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잠도 휴식도 미루시고 정력적으로 일하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늘 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생각하시였으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인민을 위한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 긴장하게 사업하시였다.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사랑의 길을 걸고걸으신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그 시작점도 종착점도 오직 인민들의 생활과 잇닿아있었고 그이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글자가 짝 차있었다.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는 장군님의 헌신적사랑은 진정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사랑이였다. 언제나 인민을 위한 길에 계시며 인민들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은 다 안겨주시고 베풀수 있는 은정은 다 베풀어주시던 그이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서는 한두마디의 말로 다 표현할수 없다.

이처럼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민관은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에 바탕을 두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적인 복무정신으로 일관되어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박영실

《꼭 꿈만 같습니다》

시원히 뻗어간 대통로에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이 일떠선 창전거리는 보면볼수록 새맛을 안겨준다.

얼마전 우리는 창전거리에서 살고있는 평양시 중구역 도시미화사업소 노동자 박승일의 집을 찾았다.

《딸랑!》

초인종소리에 방긋이 문이 열리더니 40대의 한 녀인이 나오는데였다. 그가 바로 장순녀녀성이었다. TV와 방송에서 많이 소개되어서인지 우리는 쉽게 그를 알아볼수 있었다.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집을 한번 보고싶어 왔다고 말하자 그는 반색을 지으며 우리를 집안으로 안내하였다.

그를 따라 방에 들어서니 TV와 신문, 방송으
미래의 축구선수로 (뽕아들 박원)



로 많이 보고 들어왔지만 정말 집이 멋있었다.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훌륭한 집을 지어 돈 한푼 받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믿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그러는 우리의 마음을 엿보기라도 한듯 장순녀녀성은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집을 다녀가신후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한결같이 평범한 노동자가 이런 집을 쓰고산다는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글썄 어느 한 나라 기자는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가 믿든 믿지 않든 부부가 노동자인 우리가 이렇게 살고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나누며 집안을 돌아보는데 우리의 귀전에 글 읽는 소리가 울려왔다.

《먼 옛날 어느 한 꽃밭가운데에 꿀벌들의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안에서 태어난 새끼꿀벌 마야는 아직 한 번도 성밖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

우리는 글소리가 나는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막내 훈이가 서재에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책을 읽고있었다.

우리를 띄여본 박승일(박훈의 아버지)은 《우리 애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셨을 때 책을 잘 읽어드리지 못해서 매일 훈이의 책읽기를 보아주
앞날의 미술가로 (둘째아들 박훈)



고있습니다. 지금 훈이는 원수님앞에서 읽었던 세계명작동화집 <꿀벌 마야>를 읽고있습니다.》라며 우리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제법 어른처럼 큰소리로 책을 신이 나게 읽어 내려가는 훈이의 모습은 TV에서 보던 그전날의 모습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를 꼭 껴안으시고 내 불에 몇번이나 입을 맞추어주시면서 자신께서 가져오신 책을 읽어보라고 하시었어요. 그런데 난 막 속이 두근거리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난 원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지고오신 이 책들도 다 읽고 그림공부도 열심히 하여 원수님께 꼭 기쁨을 드리겠어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자양분이 되어 몇달사이에 이렇게 훈이가 마음도 키도 몰라보게 컸구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기자선생도 TV로 보았겠지만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아주신 우리 훈이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박승일은 우리앞에 훈이의 그림들을 펼쳐놓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자식의 그림공부에 대해서는 미처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님께서 철없는 우리 훈이가 그린 그림을 하나하나 보아 주실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꽃화단도 그리

고 노란꽃, 빨간꽃도 그려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고 하나하나 다정히 말씀하시며 질문을 나서시는 순간까지 훈이를 꼭 껴안으시고 그림을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그이의 모습에는 정말 친혈육의 정, 사랑의정이 흐르고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고향은 남조선 서울입니다. 만약 내가 남쪽땅에 있었다면 이런 행운을 받아안을수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박승일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 있었다.

《나도 어머니이지만 자식들이 큰 다음부터는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준적이 별로 없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전기간 우리 훈이를 안고계시며 머리며 얼굴, 잔등을 내내 쓸어주시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저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 하며 장순녀녀성도 눈굽을 적시었다.

말이인 원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학교에서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뵙지 못할뻔했어요. 그때 원수님께서는 집에 들어서시는 나를 보시며 어데 갔다 이제 왔다고 하시며 반가와하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불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주시면서 축구를 한하는데 나하고 한번 해볼가 하시며 한품에 꼭 안아주시었습니다.》

책장을 가득 채운 책들이며 공동살림방에 있는 아리랑TV와 부엌의 찬장에 가득히 쌓여있는 그릇들, 집안의 모든 것에 어려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에 대해 말하는 이 집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기쁨속에 바라보며 집을 나서시는 우리의 귀전에 장순녀녀성의 말이 되새겨졌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꼭 꿈만 같습니다.》

글 본사기자 김학철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물을 받아안고





상월선생

나에게 《자본론》을 안내해 준 선생이 박소심이라면 고리끼의 《어머니》와 《홍루몽》을 소개해 준 사람은 상월선생이었다. 상월선생은 육문중학교의 어문교원이었다.

상월선생이 육문중학교의 교원으로 부임되어온 얼마후였다. 베이징대학 영문학부를 졸업한 새 어문교원이 학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모두 어문시간을 기다리었다.

그러나 신입교원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가닥의 불안도 없지 않았다. 교육청이 특무를 어문교원으로 배치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 교육청이 파견하는 육문중학교 교원들 가운데는 군벌당국에 매수된 불순분자들이 적지 않았다.

당시는 장학량이 장개석의 지령에 따라 만주땅에 국민당기발을 날리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때였다. 장개석의 특무조직들이 벌써 심양으로부터 길림에까지 손을 뻗치고있었다. 국민당의 놀개들이 아직 육문중학교를 완전히 자기네 수중에 장악하지 못하였지만 혁신사상이 강한 이 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움직임은 언제나 군벌과 그 앞잡이들의 주시속에 있었다.

이런 때에 새 교원이 배치되어왔으므로 학생들은 신경을 잔뜩 도사리고 어문시간을 기다리지 않을수 없었다.

상월선생은 단 한번의 강의로 학생들의 경계심을 해소시켜주고 우리의 인기를 독점하였

다. 그는 120회에 달하는 《홍루몽》의 방대한 줄거리를 한시간사이에 다 소화시키었다. 본질을 추리고 거기에 중요한 생활세부들을 끊임없이 섞어가며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솜씨가 얼마나 세련되었는지 우리는 그 소설이 가지고있는 생리와 가부장적전통이 지배하는 한 귀족가문의 조락과정을 순간에 완전히 파악할수 있었다.

상월선생이 수업을 끝내고 교실에서 나가자 학생들은 육문중학교에 보배가 굴러들어왔다고 하면서 환성을 울리었다.

그런데 선생이 《홍루몽》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면서도 그 소설을 창작한 작가에 대해서는 적게 소개하였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운동장둘레를 산책하는 상월선생을 찾아가 《홍루몽》의 저자 조설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선생은 시간의 부족으로 하여 작가의 경력은 생략하고 지나갔는데 내가 그런 요구를 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조설근의 생애와 집안력력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선생의 설명이 끝난 다음 나는 그 자리에서 작가의 출신과 작품의 계급적성격간의 호상관계를 두고 몇가지 질문을 하였다.

상월선생은 그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주었다. 선생은 자기의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전제를 두면서 작가의 출신이 작품의 계급적성격에 영향을

주는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격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은 출신이 아니라 작가의 세계관이라고 말하였다. 그 실례로 그는 바로 조설근을 들었다. 그가 강희제의 특별대우를 받는 귀족가문에서 태어나 부유한 환경속에서 자라났지만 봉피기에 있는 봉건중국의 내막과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형상적으로 보여줄수 있는것은 세계관이 진보적이었기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날 상월선생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성주학생이 오늘 나를 찾아온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의문되는것이 있거나 해명하고싶은것이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지체없이 교원의 방조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과학을 탐구하는데서 학생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 때와 장소에 구애되지 말고 질문을 많이 제기하라. 나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좋아한다.》

질문을 많이 하라는 상월선생의 그 말이 나의 마음을 끌었다. 원래 나는 소학교시절부터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으로 알려져있었다. 육문중학교에 와서도 질문을 많이 하여 교원들을 성가시게 굴었다.

상월선생은 자기에게 《홍루몽》도 있고 조설근의 략력을 발취해놓은 자료집도 있으니 보고싶거든 아무때나 와서 가져가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첫 손님으로 선생의 숙소를 방문할수 있는 행운을 지니게 되

였다.

우리 할아버지는 늘 학생이 선생의 집에 들락날락하는것은 장려할만 한 일이 못된다고 말씀하였다. 서당에서 《동몽선습》 같은것을 배우며 성장한 구세대의 인물들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신식학문의 덕으로 개명을 했다는 어른들가운데도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학생이 선생의 뒤생활을 자주 엿보게 되면 스승을 신비스럽게 대하지 않는다, 선생은 언제나 학생이 스승을 밥도 먹지 않고 오줌도 누지 않는 신선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교권을 세울수 있다, 그러자면 병풍을 치고 살아야 한다는것이 할아버지의 지론이었다.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서당공부를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였다.

아버지가 다니던 순화서당에 김지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훈장이 있었다. 그 훈장은 술이라면 감투가 벗어진줄도 모르는 애주가였다. 그는 사흘이 멀다하게 접장(지금의 학급반장)을 하는 우리 아버지에게 술심부름을 시키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고분고분 훈장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그 훈장이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도랑창에 쓰러진것을 보고난 다음부터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어느날 훈장은 되병 한개를 우리 아버지의 손에 쥐여주며 또 술을 사달라고 부탁하였다. 서당문을 나선 아버지는 바위돌에 되병을 던져 박살내고 훈장한테 돌아가 범한테 쫓기다가 돌에 넘어져 술병을 깬다고 거짓보고를 하였다. 훈장은 그 소

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 《허허, 백두산범이 만경대에까지 내려왔다. 형직이가 나한테 대포를 불지경이 되었으니 내 꼬락서니가 얼마나 추접스럽게 보였을가. 너희들한테 술심부름을 시킨 내가 잘못이지.》 하였다. 그후부터 훈장은 술을 끊었다.

훈장은 술과 결별하였지만 아버지의 머리에는 개울창에 쓰러져 술내를 풍기던 선생의 모습이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병풍을 치고 살아야 교권을 유지할수 있다는 할아버지의 지론은 이런 사연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나는 상월선생이 병풍을 칠 사이도 없이 아직 그 누구에게도 개방해보이지 않았다는 선생의 생활중심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선생의 서가에는 수백권의 책이 꽂혀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때까지 보아온 서가들중에서도 가장 풍성하고 이채로운 서가였다. 상월선생은 책부자였다. 그 서가에는 영문으로 된 소설책들과 전기문학작품들도 많았다.

나는 그 서가앞에서 좀처럼 발길을 뗄수 없었다. 이 서가의 지식을 다 섭취하면 대학을 하나쯤 더 다닌것으로 되지 않을까, 상월선생이 육문중학교에 온것은 나를 위해서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나는 이런 생각에 잠겨 손에 잡히는 책을 닥치는대로 뽑아보다가 선생에게 물었다.

《실례이지만 선생님, 이 서가를 갖추는데 몇해나 걸렸습니까?》

상월선생은 입가에 미소를 짓고 서가앞에 다가와 내 얼굴

을 바라보았다.

《한 10년쯤 걸린것 같애.》
《이 책들을 다 읽는데는 얼마만큼한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까?》

《부지런하면 삼년, 게으르면 백년.》

《선생님, 삼년을 기한으로 제가 이 책들을 다 읽는다면 저에게 서가를 개방해주시겠습니까?》

《개방하지. 그런데 조건부가 있소.》

《책만 빌려주신다면 어떤 조건부든지 다 접수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구 성주가 장차 작가로 되어야 한다는 조건부야. 나는 오래전부터 프로레타리아혁명에 이바지할수 있는 작가후비를 한두명 키우고 했는데 성주가 그 후비중의 한사람이 될수 없겠는가 하는 거요.》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실 전 문학과목을 특별히 사랑하고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몹시 동경하고있습니다. 나라가 독립된후에는 혹시 문학의 길을 선택하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저희들은 나라를 빼앗긴 망국민의 자식들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나라를 찾으려고 한평생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장차 독립투쟁에 몸을 바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대의 리상이구 포부입니다.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 곧 저의 직업으로 될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혁명승리를 위한 만능의 보검

—선군정치는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검증된 필승불패의 정치이며 혁명승리를 위한 만능의 보검이다.

오늘 세계정치계에서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목소리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로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주체92(2003)년 1월 29일)는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로선이며 정치방식입니다.》

로작에서는 우선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과 로선을 계승발전시킨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정치방식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앞세우고 군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며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이것은 군사를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간다는것이다.

선군정치는 다른 정치방식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여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의 주

체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는데 선군정치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선군정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기초로,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계승하고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켜 내놓은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선군정치로 수령님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빛내이며 주체위업승리의 앞길을 열어나가고있다.

로작에서는 다음으로 선군정치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로선이며 정치방식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선군정치는 조선혁명이 처한 국제적환경과 정세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펼친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또한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해명하고 빛나게 해결한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혁명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선군후로의 사상을 내놓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내세웠다. 바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정치라는데 선군정치의 독창성이 있고 불패의 위력이 있다.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위력한 혁명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킨 당과 수령의 업적에 기초한 정치방식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가 혁명군대의 전형으로 꾸려지고 그 강화발전의 만년초석이

마련되었으며 가장 위력한 전투대오로 되었다.

선군정치는 또한 혁명의 근본리념, 근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가장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정치방식이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위력하고 존엄높은 자주의 정치방식이다.

로작은 마지막부분에서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우월성, 위대한 생활력과 선군정치를 받들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우월성, 생활력은 혁명실천과 현실에서 증명되고 날로 더욱 뚜렷이 표시되고있다.

인민군대가 무적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고 혁명의 군사진지가 철옹성같이 다져졌으며 제국주의와의 정치군사적대결에서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그리고 수령, 당,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과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렸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고 나라의 대외관계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조선은 이제 더는 련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아니다.

그 어떤 원수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된 조선의 현실은 선군정치야말로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의 위대한 기치이며 혁명승리를 위한 만능의 보검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유선화

청년문제를 해결하시어

오늘 조국의 청년들은 당(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총진군대오의 척후대가 되어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고있다. 인민의 사랑과 믿음속에 나라와 민족의 양양한 앞길을 열어나가는 활력있는 부대로 자랑떨치는 청년들의 모습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일찌기 청년운동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주체16(1927)년 8월 28일 새형의 청년혁명가들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공청)을 결성하시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중시정치를 펼치신 **김일성**대원수님에 의하여 조선청년운동의 시원이 열리게 되었으며 조선청년운동은 주체의 궤도를 따라 곧바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열혈의 청년들을 골간으로 첫 당조직도 못하고 항일유격대도 창건하시였으며 항일의 눈보라를 헤치시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해방후 복잡한 정세속에서 청년들이 갈피를 못잡고있을 때 그이께서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을 창립(주체35(1946)년 1월 17일)하도록 하시어 청년운동의 분렬을 막고 각계각층 청년들을 하나의 청년조직에 묶어세우시였다.

언제나 청년운동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고 청년동맹을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불패의 청년대오로 강화발전시켜오시였다.

조선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오신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청년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 운동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청년동

맹을 당의 청년조직으로 그 위용을 떨치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시대와 청년들이 임무》,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조선청년운동이 주체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고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일찌기 《미래를 사랑하라!》고 하시며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펼치신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시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청년문제를 소홀히 하고 청년들을 교양육성하는 사업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을 때 그이께서는 우리 당은 청년들을 믿고 혁명을 한다시며 청년들에게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라는 값높은 영예도 안겨주시고 공청결성일을 청년절로 기념하도록 해주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으로 그이께서는 당창건 50돛경축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해불행사에 몸소 참석하시어 청년들에게 해불봉도 넘겨주시였으며 청년동맹창립 50돛을 맞을 때에는 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청년동맹기발을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민족의 아들딸답게 청춘시절을 빛내이라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들도 통채로 맡겨주시였으며 기념비적건축물들마다에 청년이라는 이름이 빛나도록 해주시였다.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조국에서는 청년문제가 완전무결하게 해결될수 있었으며 청년들은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자랑찬 승리와 위훈으로 수놓을 수 있었다.

위대한 한별만세를 부르던 김혁, 차광수세대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주체102(2013)년을 축하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찾아오는 것은 잡지 《금수강산》의 애독자 여러분의 정다운 모습들입니다.

몸은 비록 서로 멀리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민족의 넋이 살아있는 조국에 두고 산다고 한 여러분의 그 목소리가 우리의 귀전을 울리고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동포여러분은 조국과 숨결을 맞추고 살며 민족번영의 길,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나라도 조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저저마다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의 그 진정에서 우리는 애국의 마음을 보았고 그

모든것을 잡지에 더 훌륭히 담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한 길에 한마음을 바쳐가고있는 여러분이 새로운 주체100년대 두번째해에도 변함이 없으리라는 기대와 확신이

새해를 축하합니다

저희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있습니다.

동포여러분,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예순다섯번째 되는 해인 뜻깊은 올해에 애국의 마음합쳐 자주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이 길에서 기쁜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에 부닥쳐도 함께 어깨걸고 헤쳐나갑시다.

우리는 여러분이 지난 기간 그러하였듯이 올해에도 해외동포조직들에서 진행하는 일들과 자랑거리, 짧은 소식들을 우리 본사 편집부앞으로 보내여주시리라고 기대하고싶습니다.

잡지 《금수강산》이 동포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아울러 동포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잡지로 되게 하고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동포여러분, 새해 우리의 취재길에서 반갑게 다시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잡지 《금수강산》의 지면에서 서로 만납시다.

그럼 이만 펜을 놓으며 다시 한번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양력설을 즐겁게 보내십시오.

《금수강산》편집부

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리수복, 조군실세대의 청년들은 공청과 민청의 영예를 떨치며 조국해방전과 조국방위전에서 불멸의 공적을 세웠다.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진 영웅적위훈의 갈피에는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산으로, 바다로, 개발지로 달려나간 천리마시대의 청년들 그리고 준엄한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에서 불굴의 기상을 높이 떨친 선군시대 청년들의 값높은 헌신의 자욱도 깃들어있다. 오늘도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맨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신 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

승되고있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라는 친필서한도 보내주시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자회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청년절을 온 나라의 대경사로 경축하게 하도록 해주시고 축하문까지 보내주시였다. 진정 또 한분의 위인을 모시여 청년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신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영원하며 주체적청년운동의 미래는 끝없이 찬란하다.

본사기자 변진혁

례의도덕과 우리 민족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안이다.

《할머니, 여기 앉으십시오.》

《아니, 난 한 정류소만 가면 되네. 앉아있으라구.》

목소리가 나는쪽을 바라보니 한 청년이 늙은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것이였다.

정다운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 위해주는 그들의 모습이 버스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이것은 조국땅 그 어디서나 레사roi 목격할수 있는 현상이다.

사회에 차넘치는 고상한 례의도덕,

이것은 조선민족의 고유한 미풍이며 전통이다.

유구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도덕과 례의범절이 밝은 것으로 하여 동방례의지국으로 불리워왔으며 우리 민족은 문명하고 고상하며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전통적으로 이어오는것을 자랑으로 여겨왔다.

웃사람을 존경하고 아래사람을 사랑하며 청렴결백하고 의리와 신의를 귀중히 여기며 친절하고 례절바르게 행동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특유한 성품이다.

이러한 례절이 밝고 고상한 품성은 수천년동안 하나의 피줄과 력사, 문화전통을 이어오며 창조적인 로동활동과정에 더욱더 굳어지게 되었다.

밭갈이와 모내기, 김매기와 같은 농사일과 우물파기, 제방공사 등 어려운 일들을 힘을 합쳐 하는것이 고유한 풍습으로

내려왔다. 또 집을 지을 때에나 이사를 하거나 새집들이할 때에도 이웃들이 모두 떨쳐나서 도와주었는데 이것을 매우 례스럽고 응당한 일로 간주하였다.

언제나 손님들을 따듯이 대하고 도와주는것은 조선민족이 가지고있는 아름다운 미풍이다.

지난날 여의치 못한 살림이라 할지라도 궁색한 내색을 하지 않고 찾아온 손님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며 성의를 다하여 음식상을 마련하였다.

함께 식사할 때에는 주인이 먼저 수저를 들고 손님에게 권하며 좋은 음식들은 될수록 손님가까이에 놓아주었다.

손님이 수저를 놓기 전에는 주인이 수저를 놓지 않았는데 이것은 손님이 미안해하거나 어색한 느낌이 없이 마음을 놓고 식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손님을 따듯한 정으로 대하고 돌보는 이러한 풍습은 우리 인민들이 력사적으로 외래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조국방위투쟁에서 서로 고탁을 같이하면서 단합과 협조정신, 우애심을 높여 발양하는 과정에 생겨나고 굳어진것이다.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성의껏 대접하는 우리 인민들의 미풍량속은 일찌기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1653년 우리 나라에 왔던 네덜란드사람 하벨은 십여년후 본국에서 《하벨표류기》라는 기행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여기서 《마을에 손님을 숙박시키는 특별한 집이 없어도 나그네들은 마을 첫집에

들어서서 사정을 말하여 숙박한다. 주인은 손님에게 조석으로 밥과 반찬을 성의껏 대접한다. 그 집에서 나온 다음 다른 집에 가서 또 묵을수 있고 다른 마을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다.》고 쓰면서 우리 민족의 아름답고 고상한 례의도덕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기에 오래전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 덕망이 높고 점잖은 사람, 착한 사람, 성인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뜻으로 군자국으로 불렀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이러한 고상하고 우수한 례의도덕은 오늘날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적극 내세우는 사회적기풍으로 승화되어 온 사회에 화목하고 행복한 대가정의 분위기가 깃들고있다.

설날이면 누구라 할것없이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찾아가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드린 다음 할아버님과 할머니, 부모님들과 스승들에게 찾아가 세배를 올리고 그들의 건강과 사업성공을 축원하는 인사를 한다. 설날뿐아니라 여러 명절과 휴식날들에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영예군인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족의 고상한 례의도덕기풍은 오늘 인민의 감정과 정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훌륭히 계승발전되고있다.

본사기자 김학철

애국의 길



오광석

오늘 조국에는 나라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과학자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속에는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 실장 박사 오광석도 있다.

오광석은 일본에서 태어나 9살 때 조국의 품에 안기었다.

그후의 50여년간은 그 자신이 말했듯이 무료교육의 혜택으로 소학교와 중학교, 전문학교, 대학을 거쳐 지질탐사부문에 서 보

람찬 삶을 누려온 나날이었다.

주체68(1979)년 어느날 그는 한 일군을 통하여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땅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연을 성과적으로 정복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탐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우리 과학자들의 본분이고 도리이다. 더우기 이것은 지질탐사전문가인 내가 응당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내 기어이 땅속을 들여다보는 기계를 만들어내리라.)

그때부터 땅속을 들여다보는 기계를 만드는것은 그의 한생의 탐구목표였고 연구과제로 되었다.

그러나 보지도 못한 기계를 만들자고 하니 애로되는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는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로 미지의 세계를 하나하나 개척해나갔다.

애쓰 보람이 있어 그는 마침내 주체83(1994)년 7월에 땅을 뚫지 않고도 땅속을 들여다보는 기계인 CT탐사기구를 만들어 내놓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수령님께서 것처럼 바라시던 기계를 보여드릴수 없게 되었다. 그의 가슴은 절통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더 높은 목표를 세워나갔다. 그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구를 측정부분체와 컴퓨터영상표시장치, 여러개의 측정전극과 측정선으로 구성된 CT탐사기구에 더욱 완성해나갔다.

간단한 기구로 땅속에 있는 유색금속과 석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광물체들의 위치와 규모, 방향과 매장량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을뿐아니라 지하수탐사와

자원개발사업에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제2차 동북아시아고도기술박람회에 참가하여



언제를 비롯한 구조물의 기반조 사에도 다 적용할수 있는 이 기술은 가는 곳마다에서 커다란 호평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하루에 2~3명의 인원으로 3km의 구간을 탐사할 수 있는것으로 하여 막대한 탐사원가와 로력, 시간 등을 절약하였다.

광석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우리 식의 감도집초원리를 새롭게 내놓아 CT탐사의 정확도를 훨씬 높였다. 첨단기술의 하나인 이 원리의 적용으로 땅속 백여m깊이에 있는 광물체도 정확히 식별할수 있게 되었으며 지질구조의 영상자료도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기구를 개발한데 그치지 않고 과학자들과 함께 나라의 지질탐사부문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탐사문제를 푸는데 달라붙었다.

삼수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희천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창전거리, 조양탄광, 신리탄광, 은률광산 청년광구, 백마-철산물길, 미루별물길...

그의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에 의하여 적지 않은 광산, 탄광들이 새로 개발되거나 확장되었으며 수력발전소건설장들에서는 언제기반조사와 저수지의 물이 새어나가는 통로를 미리 찾아내어 필요한 대책을 세

울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용출을 멈추었던 우리 나라의 이름난 강서약수의 물줄기를 다시 찾아냄으로써 약수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찾은 과학적인 안정성에 기초하여 이룩된 성과들과 건축물들을 보며 기쁨과 영광의 절정속에 있을 때 그는 또 다른 건설장들에서 탐사의 낮과 밤을 이어 갔다.

보석은 땅속깊은 곳에 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누가 보건말건 나라의 부강변영을 위한 길에 묵묵히 한생을 바쳐가는 광석의 애국심을 소중히 여기시여 그에게 높은 평가의 말씀과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조국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



휴식의 한때

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하여 그에게 2. 16과학기술포상을 수여하였다.

광석은 자기를 내세워주는 조국의 고마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도 애국의 길을 걸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리명국

유엔은 주체56(1967)년에 유엔인구신용기금을 창설하였다.

그후 이 기구는 주체58(1969)년부터 유엔인구활동기금으로 되었으며 주체76(1987)년에는 유엔인구기금으로 개칭되었다.

유엔인구기금은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인구협조를 제공하며 국제적으로 재정적협조를 주는 가장 큰 조직이다. 유엔인구기금은 인구통계작성, 가족계획, 인구정보, 인구기초자료수집, 특별계획실행 등 여

러가지 활동들을 협조한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본부산하에 5개의 지역관리국 즉 유

상 식

유엔인구기금

럽 및 아랍지역,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지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북아메리카지역 관리국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는 주체74(1985)년에 유엔인구기금에 가입하였으며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국에 속해 있다.

유엔인구기금은 현재 우리 나라 보건성과의 협력하에 10여개의 군에 있는 병원들에 의료설비들과 의약품들을 제공하고있다.

이밖에도 정보 및 교육활동, 인구자료수집 및 분석, 인구사회경제문제연구 등 여러가지 사업에도 협조를 하고있다.

시야밖의 김은국

주체101(2012)년 7월 30일, 영국의 엑셀체육관에서는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남자력기경기가 진행되었다.

중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수십여명의 력기강자들이 참가한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하였다. 그가운데는 62kg급 경기에 참가할 우리 나라의 김은국선수도 있었다.

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두고 예평가들은 매개 나라의 메달획득수와 주력선수를 소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우리 나라 팀에서 주력을 김은국으로 보았다. 그는 2010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남자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고

력기 62kg급 경기에서 종합 1등을 하여 선수권을 보유한 전적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2011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는 훈련도중에 허리가 상한것으로 하여 종합 2등을 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이번에도 2011년 세계력기선수권보유자인 중국선수를 우승후보자로 지목하고있었다.

드디어 김은국의 차례가 되었다. 끌어올리기 세번째 들기의 신청무게는 153kg, 신심에 넘쳐 자신만만하게 나선 그는 구간봉을 힘있게 틀어잡았다. 그리고는 우려의 무게를 주저없이 버쩍들어올렸다. 그는 추켜올리기에서도 174kg을 신청하여 성공시켰다.

이에 대해 한 외신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조선의 김은국은 사람들의 시야밖에 있었다. 그러나 우승의 영예를 지녔을뿐아니라 올림픽새기록과 세계새기록보유자로도 되었다. ...》

애국가의 장엄한 선율속에 우리 나라 국기가 서서히 울랐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은 자기를 오늘처럼 키워준 조국에 대한 고마움에 젖어들었다.

그가 력기선수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곳은 평양시 삼석구역 청소년체육학교이다.

어렸을 때 그의 꿈은 룡상선수가 되는것이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다. 그러한 그를 력기의 길로 이끈것은 삼석구역 청소년체육학교 력기지도교원 최인수였다. 당시 그는 은국에게서 앞으로 훌륭한 력기선수로 될수 있는 육체적조건을 찾아보았던것이다.

이렇게 되어 은국은 력기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후 그는 4. 25체육단으로 소환되었다. 여러 경기들에서 보여준 그의 기술이 감독의 주목을 끌었던것이다. 체육단에서의 훈련은 보다 강도 높았다. 기초동작훈련에 이은 구간끝기와 채기, 받기 등 개개의 기술동작숙련을 위한 수백번의 들기... 그의 온몸은 항상 땀에 푹 젖어있었다.

그 나날에 그에게는 불치의 병을 앓던 아버지가 돌아간것으로 하여 마음의 동요가 있을적도 있었다.

그러나 은국은 한가정의 자식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일하던 사업소의 종업원들은 은국이 마음에 자그마한 그늘도 없이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훌륭한 체육인이 되도록 여러모로 원심을 써주었다. 감독과 동무들도 그의 훈련과 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나섰다. 친혈육의 심정으로 자기를 돌봐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나에게에는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도 있다.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속에 사는 사람들모두가 나의 친아버지, 친형제들이다.)

일시적이거나 나약해졌던 자기를 자책하며 그는 훈련을 남보다 두배, 세배로 하였다. 그는 감독이 제시하는 훈련과제외에 자체 훈련계획을 더

훈련을 마치고



세우고 이 모든것을 수행하기 전에는 훈련장을 떠나지 않았다.

이러한 나날속에 그의 력기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였다.

노력은 성과를 낳았다. 그는 제5차 동아시아 경기대회와 2010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을 하였다.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이룩한 성과로 하여 그는 인민체육인의 칭호를 받았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를 수여받았다.

친부모도 미처 몰랐던 철부지소년의 자그마한 재능의 싹을 찾아주고 체육인으로서 응당 할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온 나라가 알도록 내세워주는 조국의 사랑과 믿음앞에서 그는 더 높은 경기성파로 보답할 결의를 다지군 하였다.

하기에 그는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말하였다.

《우승의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의 최고 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상 식

무우를 리용한 고려치료방법

무우를 리용한 고려치료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탄가스중독때 생무우즙을 만들어먹인다. 이보다 먼저 환자를 통풍이 잘되는 곳에 옮기고 이불을 덮어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냄새나 낭습증(교환주머니가 축축한 증세)때 무우를 송덩송덩 썰어 끓인 다음 소금을 타서 부위를 여러번 씻는다.

—딸꾹질과 위산과다증에는 생무우즙과 청주를 각각 한고뿌씩 섞은 다음 생강즙을 조금 타서 식후에 먹는다. 오래 먹을수록 효과가 크다.

—당뇨병으로 갈증이 심할 때 생무우즙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효과가 크다. 그리고 이 즙을 마신 뒤 속이 쓰리면 밤물이나 우유를 한고뿌 마신다.

실현 일군



김병춘

향유의 흔적은 남지 않아도 일의 흔적은 뚜렷이 남으며 잉크로 새기는 자서전보다 땀으로 새기는 자서전이 더 훌륭하다는 말이 있다.

오늘 우리 조국에는 한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는데서 자기의 기쁨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중에는 나라의 서북부에 위치하고있는 백마역에서 역장으로 사업하고있는 김병춘도 있다.

그가 철도운수부에서 일하고있는지는 40여년을 헤아린다.

그의 마음속깊이에 철도가 자리잡힌것은 어린시절부터이다. 철도운수부에서 한생을 바쳐온 아버지를 따라 보금자리를 옮기면서 생활하는 과정에 그는 철도를 알게 되었다. 늘 철도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에게 철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었

고 이것은 중학교를 졸업한 그가 대학으로가 아니라 철도운수부에서 사회생활의 첫발을 들여놓게 하였다.

어려서부터 탐구심이 강하고 정열적인 그는 인차 자기 직무에 정통하였고 언제나 임무수행에 성실하였다. 여러 철도역들에서 운전지휘원, 사령원으로 일하는 나날에 말은 적지만 모든 일에서 책임성이 높고 성실한것으로 하여 그는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김병춘이 백마역 역장으로 일하게 된것은 십여년전부터였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나라의 경제생활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화물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개 역을 책임졌다는 자각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하였다.

그가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역의 화물수송량은 높지 못하였고 역에는 항상 화차가 머물러 있었다.

몇가지 부속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화차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던것이다. 나라가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겪고있는 때라 우에다 손을 내밀고 앉아서 기다릴수가 없었다. 그는 여기저기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부속품들을 해결하였다. 역이 수송계획을 수행한것으로 하여 종업원들모두가 기뻐하였지만 그의 얼굴은 밝지 못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화물수송계획을 수행하겠소. 조건이 좋다면 우리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것ियो. 부속품을 보장해 주기만 바랄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봅시다.》 이것은 그가 종업원들에게 한 호소이자 결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일을 시작하고 보니 말처럼 쉽지 않았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패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화차들의 머무름시간을 줄이기 위해 조직사업을 짜고든다.

무슨 일에서나 끝장을 보고 야마는 성미인 그는 낮에는 역사사업전반을 지휘하고 밤이면 부속품생산설비들을 불안고 씨름질하였다. 때로는 부족되는 설비부속품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수백리길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역장을 따라 종업원모

두가 분발해나섰다.

마침내 자체로 꾸려놓은 화차부속품생산기지에서 질 좋은 부속품들이 생산되어 화물수송량이 높아지게 되고 종업원들의 가슴속에서는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세어졌다.

그는 만족을 몰랐으며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해나갔다.

화차들의 머무름시간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꾸려놓은 정비선과 정비시설이며, 줄어든 화차회귀일수, 옛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변모된 역 구내며 자체

로 꾸린 후방공급기지 등 모든 것에는 그의 창조적이며 헌신적인 일본새가 비껴있다.

말은 임무에 대한 책임성, 자력갱생을 제일가는 힘으로, 밀천으로 여기는 그의 일본새에 의하여 역은 화물수송계획에서나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 앞선단위로 되었다.

그 나날 역은 아버지장군님의 세차레에 걸치는 감사를 받아안게 되었으며 김병춘은 온나라가 다 아는 선군시대의 공로자라는 값높은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오늘도 그는 두줄기의 레루를 받드는 침목과도 같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누가 보건말건 자기의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명식



두 제도에 비낀 청년들의 모습

《청춘의 영예와 보람은 결코 화려한 무대에만 있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흥단에 더 많은 감자꽃을 피우는 길에서 저의 청춘시절을 빛내이고 싶습니다.》

지난해 금성학원을 졸업하고 정든 수도를 떠나 대흥단으로 자원진출한 리은별의 말이다.

그는 전국적인 피아노독주경연에서 1등을 한 전적을 가지고 있고 졸업을 앞두었을 때에는 음악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는 길이 열려져있었지만 멀고 먼 북방의 대흥단군으로 달려가 농장원이 될것을 결심하였다.

조국에는 리은별이처럼 자기의 안일과 부귀보다 먼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에서 청춘의 영예와 보람을 찾는 청년들이 수없이 많다.

작년에만도 평양과 평안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량강도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많은 청년들이 나서자란 고향을 떠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진출하였다. 그 수는 무려 수십만명에 달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영예군인의 한생의 길동무, 부모잃은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어주고 자식없는 늙은이들의 아들딸이 되어 그들을 따듯이 돌봐주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청년들속에서 계속 발휘되고있다.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이는 길에 청춘의 값높은 삶도, 영예도 있다는것이 우리 청년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간직된 인생관이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강성국

가건설장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나가고있다.

청년영웅도로, 창전거리, 릉라인민유원지, 개선청년공원유회장,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청춘의 열정, 포부와 리상을 안고 우리 청년들이 일떠세운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조국땅 그 어디에나 있다.

하기에 조국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자랑으로,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그토록 사랑하고 내세워주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청년들은 사회의 골치거리, 우환거리로, 온갖 사회악을 낳는 주범으로 버림을 받고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안젤스시에 있는 한 대학구내에서 20대의 범죄자 2명이 무고한 대학생들에게 마구 총을 쏘아 사하여 여러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의 지바현에서는 20대의 청년이 5살난 어린이를 랏치하여 무참히 살해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남조선사회만 놓고보아도 퇴폐적인 사회풍조에 물젖은 청년들이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을 죽이는 가족살인사건에 대한 소식들이 출판물에 계속 실리고있다.

술에 만취되어 집에 들어온 21살의 한 청년이 부모가 자기를 통제한다고 하여 식칼로 사정없이 찔러죽였고 주식투자실패로 돈을 잃은 한 청년이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와 누이들을 살해하는 등 상상도 못할 끔

찍한 살인사건들이 남조선사회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한 출판물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가족살해사건은 해마다 수십건씩 발생하고있는데 특히 20대의 청년들속에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고 한다.

돈이라면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도 꺼리낌없이 죽이는 청년들이니 그 어떤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으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청년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런 폭력범죄사건들은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남조선사회의 필연적산물이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청년들의 범죄률이 증가하여 사람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의하면 청년들의 폭력범죄행위는 몇년사이에 평균 50%나 늘어났다고 한다.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물젖은 자기 중심의 생활관, 룰리관이 지배하는 남조선사회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고상한 인생관은 생각조차 할수 없다.

당(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아낌없는 사랑속에 강성국가건설의 담당자, 미래의 주인공들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청년들과 사회의 우환거리로, 골치거리로 되어가는 자본주의제도 청년들,

두 제도에 비낀 청년들의 모습은 과연 어느 사회의 미래가 더 밝고 아름다운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변진혁



김형직 사범대학

평양의 동평양지구에는 나라의 교육인재양성기지의 하나인 김형직(위대한 수령님의 아버님) 사범대학이 있다.

김형직사범대학은 우리 나라에서 사범교육부문의 첫 대학이다.

대학은 해방후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주체35(1946)년 10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과 함께 제일 먼저 세워졌다.

창립당시만 하여도 중학교 교원을 양성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던 대학은 오늘 전문가자격을 가진 대학교원양성대학으로 발전하였다.

대학에는 력사학부, 철학부,

교육학부, 어문학부, 수학을 비롯한 10여개의 기본학부와 1개의 재교육학부와 박사원이 있다.

부문별에 따르는 수십여개의 학과와 강좌들 그리고 사범교육연구소와 원격교육중심, 자연교육연구소, 정보기술교류소 등 교육과학연구기관들도 있다.

대학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일군들을 양성하여 교육부문과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내보내였으며 졸업생들속에서는 공화국영웅, 로력영웅, 인민교원, 공훈교원, 공훈과학자,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들이 수많이 배출되었다.

오늘날 대학에서는 외국류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있

으며 지금까지 이 대학을 졸업한 류학생들만 해도 수백여명에 달한다.

60여년을 헤아리는 이 대학의 발전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령도의 력사이다.

언제나 후대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주체100(2011)년 5월에 김형직사범대학에 현대적인 교사와 도서관을 일떠세울데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인민군인들이 말아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여기에는 해방후 건국의 초행길에서 나라의 첫 교원양성기지를 일떠세워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83(1994)년 7월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교수토론회를 진행하는 교원들

5일 몸소 대학의 현판까지 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그대로 어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공사정형을 수시로 료해하시면서 공사가 짧은 기간에 완성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하여 지난해 현대적인 새 교사들과 도서관이 건설되고 각종 체육활동과 대중문화예술활동을 벌릴수 있는 체육관과 문화회관

실험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익혀간다.



이 번듯하게 개진됨으로써 대학은 사범교육의 원종장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새롭게 일신하게 되었다.

오늘 김형직사범대학안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나라의 교육인재양성의 모체대학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교육교수사업과 교육과학연구활동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

글 분사기자 강 국
사진 분사기자 방은심



도서관에서 배운 지식을 광고히 하는 학생들

훌륭히 갖추어진 교육조건에서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



통일거리운동센터

통일거리운동센터에서 행복에 넘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연건축면적이 1만 3 749㎡인 센터는 지난해 10월에 준공되었다.

센터는 건강운동실, 수중초음파실, 건강회복실, 탁구장, 청량음료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체력단련을 할수 있는 달리기운동기재, 자전거운동기재, 노젓기운동기재를 비롯한 61종에 138대의 각종 운동기재들과 현대적인 치료설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 있다.

통일거리운동센터에는 1층과 2층에 이어 3층에 건강운동실들이 전개되어 있으며 매 층들에 운동기재들이 대중운동센터답게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건강운동실과 건강회복실, 신체의 각 부위에 자극을 주는 현대적인 초음파설비들과 습식 및 건식한증, 샤워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는 수중초음파실에서 근로자



들은 운동과 치료에서 효과를 보고있다.

통일거리운동센터는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구상에 따라 세워졌다.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다른 목적으로 건설하던 이곳을 근로자들이 체력단련도 하고 치료체육도 할수 있는 대중운동센터로 만들도록 해주셨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는 이곳으로 많은 청소년학생들뿐아니라 하루종일 방안에 앉아 일하는 사무원들도 찾아와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2층 건강운동실과 탁구장

애국의 마음비긴 대동강타일

대동강기슭에 일떠선 대동강 타일공장에서는 최근 생산능력을 거의 2배로 확대하고 각종 대형고급견재들을 대량생산하고있다.

이 공장의 제품들은 그 어느 것이나 할것없이 색깔과 모양뿐 아니라 그 질이 좋아 구매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특히 지난해에 2단계 능력확

장공사를 끝낸후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미정석과 대형 유리복합타일, 대형인조 대리석 타일 등은 사람들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대동강타일공장 제품들은 모두 크기와 형태, 색깔과 문양이 다양하고 방수와 차열기능 등을 갖추고있으며 평면 및 직각허용수치, 수축률, 강도, 랭견딜성을 비롯하여 그 질적수준이 높아 국제품질인증을 받았다.

공장에서는 우리 나라에 흔한 석탄을 가스화하여 타일소성을 하고있으며 모든 생산공정들이 현대화되고 생산문화가 높은



생산조직을 짜고든다.

바닥타일생산





유리복합타일생산



미정석생산





초고압물절단기로
가공한 제품

시면서 그것이 바로 애국심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조국에 혼한 원료로 생산한 대동강타일공장 제품들,

앞으로 대동강타일들로 안팎을 멋들어지게 장식한 대상물들이 우리 조국땅에 더욱 늘어나게 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명국

초고압물절단작업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다.

지난해 9월, 이 공장을 찾으시여 생산되는 타일제품들을 보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공장로동계급의 일본새를 높이 평가하여주



자기기와생산

공장에서 생산한 타일들의 일부



평양승강기합영회사

오늘 조국에서는 《조선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에 따라 수많은 합영기업들이 조직되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그가운데는 평양의 동대원지구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승강기합영회사도 있다.

이 회사는 중국에 살고있는 동포인 김남철이 경영하는 베

이징대륙풍보유한공사와 합영하여 승강기의 부분품제작과 조립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회사에서는 승강기합과 통로문 등 승강기제작에 필요한 부분품뿐만아니라 각종 배전반외함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관품을 업종별로 다양하게 생산하고있다.

회사는 조직된지 얼마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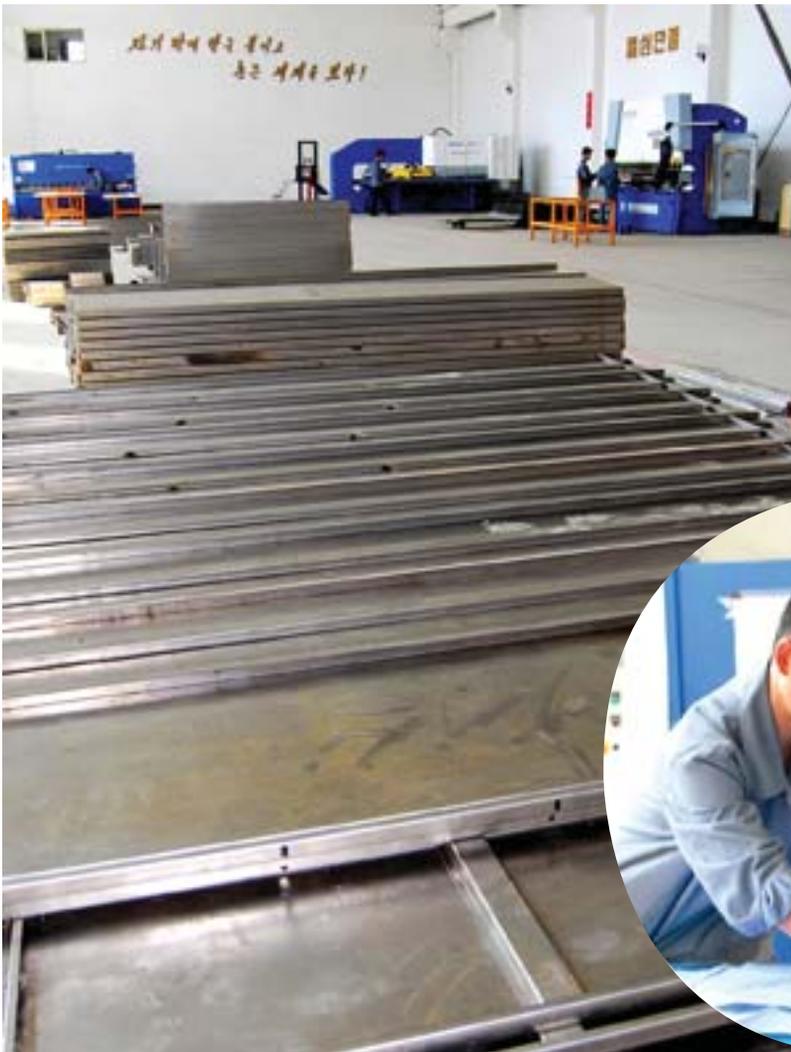


김남철

않지만 조국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수도 평양의 만수대거리, 해방산거리, 창전거리와 보통강고기상점, 봉화예술극장, 평양교예극장을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새롭게 일떠서고 있는 많은 건축물들에는 이 회사에서 생산된 승강기들이 리용되고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새로 건설되는 살림집들에 리용하게 될 승강기들을 생산하고있다.



지금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은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고있으며 그에 맞게 회사에서는 제품의 질을 더욱 개선하고 그 품종을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보고싶은 큰어머니에게

안녕하십니까.
보고싶은 큰어머니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평양에 사는 조카 영란이가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큰아버지와 언니, 오빠를 비롯한 큰어머니네 식구들도 모두 잘 계십니까.
조국의 우리들도 건강한 몸으로 다 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큰어머니가 조국을 방문하시었을 때 저는 방금 해산한 몸이라 큰어머니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큰어머니를 만나본지도 벌써 2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1살이었지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거리의 차들을 지휘하는 교통보안원이 되고보니 큰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더군요. 그래서 해외동포들이 탄 뺨스들이 내앞을 지나갈 때면 혹시나 우리 큰어머니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차안의 손님들을 한사람한사람 자세히 보곤 하였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려본 큰어머니였는데 이번에 기회를 놓치고보니 아쉬운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큰어머니가 가지고오신 가족사진이 그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세월은 퍼그나 흘렀어도 둥그스름한 얼굴에 언제나 웃음을 담고계시던 큰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하더군요.
큰어머니를 만나보고 오신후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큰어머니가 나이가 적지 않은데 많이 늙은것 같지 않다.

꽤 활하고 의협심이 많은 그 성격은 그대로이더구나. 언제나 얼굴에 웃음을 담고 밝은 마음으로 생활하고계시는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
회령에서 어릴적에 큰어머니와 헤어진 때로부터 걱정을 안고 살던 아버지여서 큰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보면 시름을 좀 놓으시는것 같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혈육의 정은 수십년간이라는 오랜시간이 흘렀어도 언제나 뜨겁게 이어지는 법인가 봅니다.
참, 내 동생 승중이 소식을 전하지 못할번 했습니다.
김철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평양휴암중학교에서 청년동맹, 소년단 책임지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큰어머니가 조국에 오시였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승중인 큰어머니를 만나보던 일이 생생히 기억된다고 하면서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점차 나이가 들면서 그 상봉이 얼마나 귀중한것이었던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있는지...
그때 큰어머니를 좀 더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것이 후회됩니다.
이번에는

그 후회를 풀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것이 참으로 민망스럽습니다.
저는 큰어머니가 중국에서 살면서도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안고 애국심을 발휘하여 동포사업에서 앞장서고있는것을 커다란 긍지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국에 있는 친척들과 조카들의 마음을 안고 부강조국건설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시리라고 믿고싶습니다.
큰어머니, 이제 얼마 안있으면 새해 2013년입니다.
새해를 맞으며 큰어머니의 가정에 언제나 기쁨과 행복만이 꽃피나기를 기대하며 저와 우리 가족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상봉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평양시 선교구역 남신1동
22인민반 조카 장영란 올림
(2012년 12월 10일)



살기 좋은 고장

평양시 형제산구역의 서쪽으로 가느라면 사람들의 시선을 류달리 끄는 아담한 마을이 나 있다.

중국 흑룡강성에서 살고있는 리창걸동포의 고향인 평양시 형제산구역 형산리이다.

농촌특유의 그윽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마을어구에서 우리는 농장일군인 정경일을 만났다.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그는 형산리마을을 한눈에 바라보자면 형산에 올라가보아야 한다고 하며 우리를 이끌었다. 산기슭에 펼쳐진 과일나무밭속에서 풍기는 열매향기를 한껏 들이키면서 산으로 오르는 우리에게 정경일은 형산리의 유래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이 지대에는 생긴 모양이 꼭 같은 산이 두개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산들을 가리켜 형제산이라고 불렀다. 그중 형산의 앞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켜 형산리로 불렀고 아우산앞에 있는 마을은 제산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힘든줄 모르고 산

에 올랐다. 정말 형산리마을전경이 그림처럼 안겨왔다.

추녀가 건듯 들린 보기만 하여도 안온해보이는 살림집들과 학교, 유치원, 문화회관 그리고 편의봉사시설들, 누렇게 익어 출렁이는 벼바다, 푸르싱싱한 잎들을 펼친 남새포전들, 산기슭에 우거진 갖가지 과일나무들...

흐뭇한 눈길로 마을전경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정경일은 《우리 고장이 이처럼 놀라운 전경을 안아온것은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해방전 이곳 사람들의 생활 형편은 말이 아니였다. 얼마 안되는 뽕기논에서 거두어들이는 곡식마저 일제와 지주에게 빼앗겨 농민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령락되어만 갔다. 마을사람들은 너무 살기 힘들어 모두가 정든 고향산천을 떠나가버렸다.

그러던 이 고장에 천지개벽의 새 령사가 시작되였다.

주체38(1949)년 4월을 비롯

하여 여러차례나 형산리를 찾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퇴비를 많이 생산하고 포전정리를 잘하여 농사일을 기계화하며 마을을 깨끗이 꾸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농장에 트랙토르와 화물자동차 등 50여종의 료전기재와 주요영농자재뿐아니라 생활필수품들까지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 이 고장에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형산유치원

이 나날에 형산리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되었다.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를 지어야 했던 이 고장사람들이 관개수가 흘러들어 밭농사는 물론 논농사도 마음껏 지을수 있게 되었다. 봄이면 사과꽃, 배꽃향기속에 묻히고 가을이면 과일향기 마을가득 넘쳐나니 이 고장사람들은 자기 마을을 더없이 살기좋은 곳이라 자랑을 한다.

그들의 말대로 형산리는 정말이지 살기좋은 고장으로 되었다.

최근년간에만도 농장에서는 낫은 집들을 대담하게 헐고 그 자리에 수십여동의 살림집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그리고 남새밭에 관수체계를 완비하고 남새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

으로 하는 한편 남새의 품종을 늘이고 생산량을 끊임없이 높여 수도시민들에게 여러가지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고있다.

우리는 포전도 돌아보고 무르익는 열매속에 펼쳐진 과수원이며 남새포전, 축산반도 돌아보았다.

뿐만아니라 마을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 들려오는 살림집들이며 탁아소, 유치원 등도 발길닿는대로 찾아보았다.

말그대로 옛 흔적이란 찾아볼수가 없었다.

아마 리창결동포가 고향을 찾는다면 무엇을 보고 고향이라고 할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에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형제산을 보고서나 알겠는지.

유모아

력사는 되풀이

어느 한 학생의 아버지가 선생을 찾아가 물었다.

《우리 아들의 력사성적이 어떻습니까? 내가 학교다닐 때 력사공부를 싫어했거든요. 한번은 력사시험에서 락제를 했습니다.》

선생은 《력사는 되풀이되고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형산땅에 비낀 전변의 새 모습에서 나날이 꽃피는 우리 조국의 사회주의문화농촌의 풍만한 래일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리명국



형산중학교



형산상점에서





동포여러분, 새해가 밝아옵니다.

희망찬 새해 주체102(2013)년을 맞으며 여러분의 사업과 생활에서 보다 큰 성과와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뜻깊은 지난해를 긍지롭게 장식한 추억과 함께 조국의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으로 가슴설레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심정도 같으리라고 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여러분은 통일애국의 길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비롯한 많은 동포조직들에서는 동포들사이의 호상리해와 단합을 이루며 그들속에서 민족의 대, 애국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도록 힘껏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0돐이 되었던 지난해에 조국의 강성국가건설에서 더욱 큰 전진이 이루어지도록 성의어린 지원물자들을 안고와 조국인민들에게 힘을 더 해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 알베르타주의 《푸른 통일조국가꾸기운동》대표 김원백동포는 조국의 산과 들을 더욱 푸르게 하기

미래를 향하여

위하여 한해에만도 여러차례 조국을 방문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었고 미국 우륵교향악단 단장 리준무동포와 그의 안해 전 화심동포는 음악으로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고자 순회공연의 수만리 먼길을 걷고걸었습니다.

조국과의 경제협력에 깊은 관심을 두고 사심없이 마음을 써온 중국 절강성 향주시의 최동원동포를 비롯한 재중동포경제인들,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반공화국책동을 반대하여, 조국의 평화수호와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조국인민들에게 힘있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재로동포들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있는 해외동포들...

비록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여러분의 그렇듯 열렬한 애국의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인민들과 하나로 합쳐졌기에 조국의 2012년은 세계의 초점을 모으며 민족사에 빛나게 새겨질수 있었던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 진정을 잊지 않을것입니다.

동포여러분, 지금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조국, 제국주의련합세력 대 북이라는 첨예한 대결전에서 보란듯이 자기의 미래를 향하여 도도히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지켜보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행복한 미래는

조국의 강성국가건설과 통일실현에 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뭉쳐 거족적인 통일애국의 대진군을 힘차게 벌린다면 밀려드는 전쟁의 검은 구름을 가시고 조국의 미래를 하루빨리 펼칠수 있을것입니다.

단합은 승리의 원천입니다.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어 하자고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 다 실천하는것이 우리의 의지이고 기질이며 거기에 우리 민족의 힘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태양절 경축 열병식 그리고 련이어 준공을 터친 평양의 창전거리며 평양민속공원, 단천항,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등이 이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모두 굳게 손을 잡읍시다.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동포조직안의 단합을 이루며 조국과 숨결을 함께 합시다. 그 힘으로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통일애국의 대오를 순결하게, 튼튼하게 꾸리어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펼쳐야합니다. 공화국창건 65돐,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이 되는 의의깊은 이해에 애국애족의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깁시다.

더욱 번영할 우리 조국의 2013년을 그려보며 여러분에게 다시금 인사를 보냅니다.

동포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해외동포사업국 처장 로명천

삼가 인사를 드린다

몇해만에 밟아보는 고국땅이다. 그사이 많이도 변하였다. 거리에 담배꽂초 하나 없는것이 예전과 다를바 없었지만 더 깨끗하고 생기에 넘치는것만 같다.

내가 이번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은 만수대지구에 일떠선 창전거리이다. 한두채의 살림집이 아니라 웅근 하나의 거리가 그것도 한해동안에 현대적으로 일떠섰다는것이 참으로 놀랍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근로인민들을 위해 웅근 한개 거리를 새로 건설하는 나라는 없다.

이것은 대원수님들께서 지니시었던 령도풍모를 그대로 지니시고 그 분들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신 고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원수님의 영상을 처음으로 뵈었을 때 나는 물론 우리 동포들은 놀라움과 경탄, 기쁨과 환희로 설레였었다. 나처럼 나이많은 사람들은 대원수님들을 다시 뵈옵는듯싶어 걱정을 금치 못해하였고 젊은이들은 그이의 모습에서 민족의 밝은 앞날과 휘황한 미래를 확신하며 가슴들을 들먹이였다.

여러 기회에 원수님의 존귀하신 모습을 뵈었지만 주석님의 탄생 100돏경축 열병식에서

연설하시는 그이의 모습은 정말이지 매혹적이였다. 그이는 무척 세련되고 로숙하시였다.

그때 세계언론은 그이는 인류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커다란 관심을 모은 지도자이다, 그이는 매력적인 모습, 여유있고 자신만만한 모습, 대중과 함께 계시는 친근한 모습으로 령도자로서의 완벽함과 원숙함을 세계에 과시하시였다고 평하였다.

옳은 말이다. 이번 고국방문의 나날에 나는 원수님께서 소문도 없이 새집들이한 창전거리의 평범한 가정들을 찾으시여 늘 함께 사는 한집안식구처럼 자그마한 간격도 없이 근로자들과 기쁨을 나누시는 모습을 TV화면에서 보게 되였다.

어쩌면 그리도 인민에 대한정이 극진하고 마치도 수십년 세월 함께 계신것처럼 친숙하실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였다.

그이는 정녕 류다른 분이시다. 인민을 위해 그처럼 열정적으로 일하시기에 고국인민들은 부족되는것이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련은 있어도 래일에 대한 신심에 그토록 넘쳐있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이번에 딸과 외손녀와 함께 고국에 온것은 그들에게 자기 부모에 대하여, 고국에 대하여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그 애들은 만경대와 대성산 혁명렬사릉, 국가선물관, 조국



통일3대헌장기념탑 등을 돌아보면서 자기들의 몸에도 조선민족의 피가 흐르고있다는것을 더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자기 고국을 잊지 않고 민족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하였다.

몇해전에 100송이의 꽃을 가지고 고국에 와서 《금수강산》에 소개된 나이고보면 이번에 가지고 온 30송이의 빨간 장미에 대한 설명은 길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내가 한마디 말하고 싶은것은 이 꽃들에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마음속에 모시고살고 싶은 나의 진정이 깃들어있고 원수님을 민족의 령도자로 받들어어나가는 길에 우리 민족의 휘황한 앞날이 있다는 확신이 담겨져있다는것이다.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

우크라이나고통련 김용술

우리의 마음은 하나

청년절경축행사에 참가한 기쁨을 안고 조국의 청년들과 함께 친선련환모임에서 마음껏 웃고 또 즐겁게 뛰었더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모임에서는 《우리》팀과 《하나》팀으로 나누어 체육오락경기가 진행되었다.

두 팀은 배구경기와 발목매고달리기경기를 비롯하여 8개의 경기종목에서 4:4 동점을 기록하였다. 경기결과가 발표되자 온 체육관에 떠나갈듯 한

박수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경기가 끝난 다음 우리는 조국청년들에게서 청년사업경험들도 듣고 의견도 나누었으며 그들과 함께 씩씩하고 기백이 넘치는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었다.

분명 우리는 하나였다.

우리는 하나!

참으로 생각이 깊어지는 말이다.

한피줄을 이은 우리는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는 하나였다.

련환모임에 참가하여 나는 이 말에 담겨진 깊은 뜻을 다시한번 깊이 새겨보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조국을 위한 길에 청춘을 빛내어갈 우리들의 마음과 뜻은 하나이라는것을 체험하였다.

바로 이 친선련환모임에 남조선청년들도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북과 남, 해외의 청년들 아니 온 겨레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함께 나눌 그날은 꼭 오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연변지구
위원회 사무국장 김계순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동포들 조국청년들과 상봉



큰절을 올렸던 감격을 잊을수 없습니다

저는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에서 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는 김영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의 가슴속에는 커다란 소원이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아니 저의 소원만이 아니라 재중동포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라고 해야 더 정확할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세상에 자랑높은 민족으로 되게 하여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단 한번만이라도 몸가까이에서 만나뵙고 마음속소원을 아뢰이는 것이였습니다. 간절한 그 소원은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해가 흘러도 이룰수 없는것으로 되어 우리 동포들의 가슴속에 한으로 되고말았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소원을 풀어주실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지난해 8월, 저는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의 일군들과 함께 평양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청년절경축대회 대표로 참가하여 그 소원을 풀었던것입니다.

사실 조국에 첫발을 내디디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올랐습니다. 언제면 그이를 몸가까이 만나뵙을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꼭 풀릴것만 같아서였습니다.

이제 그이를 만나뵙오면 저는 꼭 우리 재중동포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인사를 정중히 올릴 오직 한 생각이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시각이 왔습니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큰일을 한 조국의 청년들과 비해볼때 너무도 한 일이 없는 해외의 청년대표들이 그이를 모시

고 기념촬영을 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는 저는 금시라도 심장이 멎어버릴것만 같았습니다.

촬영식장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습니다. 오직 저의 숨소리만 크게 들려왔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풀리게 될 시각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저와 같을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원수님을 만나뵙오면 무엇을 말씀드릴까. 그이를 천만년 따르고싶은 재중동포들의 간절한 심정을 어떻게 짧은 말에 다 담을수 있을까. 그이를 만나뵙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 원수님께서 나의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또 우리가 이역땅에 살면서 무슨 설음이라도 있는것이 아닌가고 근심을 하지 않으실까. ...)

어떻게 하나 그이께 힘이 되는 인사말을 고르고싶었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글썽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의 친근한 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식장으로 나오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온 장내에 그이를 따르는 신념의 웨침인양 전체 청년대표들의 만세소리가 터져올랐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20성상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신 영광의 땅에서 살고있는 우리 200만 재중동포들이 중국을 방문하시는 아버이



김정일대원수님께 단 한번만이라도 축원의 꽃다발을 드리고싶었던 그 소원이 마음속깊이 쌓여있었기때문에 격정은 더욱 컸었습니다.

그리고 장군님을 더잘 모시지 못한 자책감을 안고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그이의 뜻대로 김정은원수님께 모든것을 다 의탁할 맹세를 다진 저희들이였기때문입니다.

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청년들을 대표하여 인사를 드리려 기다리고있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위원장 김차돌과 저의 앞으로 한결음한걸음 다가서시였습니다.

태양의 열기가 몸가까이에서 미쳐지는듯 한감을 느끼는 순간 저는 그이께 최은복의장을 비롯 200만 재중동포들의 마음을 담아 삼가 큰절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린후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로부터 레의도덕이 밝은 우리 조선민족은 설명절이나 생일날이면 웃어른들에게 그렇

내가 서보고싶은 곳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이 한눈에 다 바라보이는 곳에 꼭 서보고싶었다.

이번에 청년절경축대회에 참가한 나는 풍라팝등어관에서 그 소원을 풀었다.

팝등어관람홀에서 팝등어들의 재주를 즐겁게 볼 때였다.

공연이 한창 절정에 올랐을 때 소개자가 청년대표들에게 땅편과 바다편을 갈라 룬돌리기경기를 하는것이 어떻가고 하면서 자신있는 사람은 무대에 나오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흥분되었다.

저 자리에 내가 서볼수만 있다면...

더 생각해볼 겨를이 없이 나

는 제일 먼저 손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대담하게 무대로 나섰다. 팝등어와 나와이 경기가 시작되었다. 팝등어는 주둥이로 룬을 뱅글뱅글 쉬임없이 돌리는데 스물일곱해동안 한번도 룬운동을 해본적이 없는 나는 룬을 얼마 돌리지 못하고 자꾸 떨구었다. 그러는 나의 모습을 보고 관중들은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를 응원하여 박수를 크게 쳐주었다.

경기가 끝난후 상으로 풍선 묶음을 받았지만 나는 취이 무대우를 내릴수 없었다. 그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기쁨이 너무 커서였다.

이렇게 훌륭한 곳에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조



국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나는 보고 또 보았다.

이런 자리에 서보고싶은것은 나 하나만이 아닌 우리 조국 청년들모두의 심정이다. 그들의 한결같은 소원을 내가 이루었다는 환희가 이 가슴에 차고넘친다.

일본 효고현 조청본부
부위원장 김대상

게 큰절을 올리곤 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저를 두팔로 안아 일으켜세워주시었습니다. 저는 자꾸만 쏟아져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그이께 이렇게 말씀드리었습니다.

《원수님, 우리는 길림땅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모든 정성을 다하여 정중히 모시며 1950년대 우리 부모들처럼 결사옹위의 성새, 방패가 되어 조국을 받들어나가겠습니다.》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자애로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시며 재중동포들의 마음이 담긴 인사를 귀담아 들어주시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그이의 넓은 한복에 안기었습니다. 마치도 해외에

서 얼마나 수고가 많겠는가고 말씀하시는 어버이장군님을 만나뵈운것만 같았습니다.

원수님의 품에 안긴 저는 《원수님, 우리 해외동포들의 행복과 운명이 원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눈물을 삼키며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회는 한번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에게 그렇듯 크나큰 영광의 기회가 차례지게 되었는지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제는 쌓이고쌓였던 소원을 풀었습니다.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이 끝난후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위원장은 저를 찾아와 저의 손을 꼭 잡고 어떻게 그이께 큰절을 드릴 생각을 다하였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올

린 큰절은 재중동포들뿐만 아니라 일본과 세계의 전지역에 살고있는 전체 해외동포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인사였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생토록 잊을수 없는 그날의 감격을 자주 되새겨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재중조선인청년운동을 더 힘차게 벌려나갈 의지를 가다듬곤 합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안녕하시면 우리 민족이 살고 조국이 부흥합니다.

그이의 안녕을 아침저녁 간절히 바라고바라며 언제나 마음속의 큰절을 드립니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위원장 김영녀

잊지 못할 유희장에서의 하루

지난해 8월말 청년절경축대회에 참가한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대표들이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었다.

그들이 유희장에서 마음껏 웃으며 보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하지만 뜻깊은 청년절경축대회와 더불어 그들의 가슴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된 그 시간,

그 시간에 그들은 조국인민들이 누리는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온몸으로 체험하였다.

동포청년들의 그 모습을 아래에 담아본다.

배그네와 팔빙수

유희장에 들어선 동포들은 고전미가 넘쳐나는 배그네에 제일 먼저 올랐다. 등실등실 오르내리는 배그네를 타며 모두가 기쁨의 함성을 터쳤다.

시원한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손을 높이 들어 흔드는 동포들속에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고있는 모습을 화면에 담아가며 련속 사진기사타를 누르는 박경일동포며 눈을 꼭 감고 소리조차 못 내는 김영희동포도 있었다.

한편 그 시각, 맞은편 빙수매대의 돌의자에 앉아 그들을 즐겁게 바라보는 동포도 있었다. 량금해동포였다.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것을 먹으며 구경하는것도 배그네타는 재미와 못지 않는데...)

이때 그의 앞으로 배그네에서 내린 한성옥동포가 3중회전반을 타려고 지나가고있었다. 량동포는 그를 의자에 불러앉히며 말했다.

《난 이렇게 맛있는 팔빙수

를 난생처음 먹어봤어. 시원하게 한번 맛보렴.》

《어마, 유희장에 왔는데 유희는 안타깝습니까?》

한동포의 이 물음에 량동포는 《구경하는 재미가 더 있다는것을 잘 모르니 할수 없지.》라고 하며 달디단 팔줄임을 올려놓은 빙수를 한그릇 더 가져다 자기의 앞에 놓았다.

《평양이 다 보이는것만 같아요-》

올려다보기에다 아찔한 급강하탑과 회전그네는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있었다.

김길원, 류창환, 문태환, 한성옥, 리설희동포들이 급강하탑에 올라 고정띠를 맸다. 제일 연약해보이는 리설희동포의 몇발자국앞에 있던 리희웅동포는 그에게 《이젠 후회해도 필요없네.》라면서 룡을 하였다.

딸각딸각 소리를 내며 그들실은 유희기구가 천천히 정점으로 올라갔다. 리설희동포는 그때의 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급강하탑에 오르니 아름다운 모란봉일대의 경치가 한눈에 안겨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움을 느끼고 아닌게 아니라 후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점에 올라 50초가량 평양의 모습을 바라보니 야— 하는 감탄이 연방 터져나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기를 모으는 급강하탑의 매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것 같습니다.》

그 맛을 본 동포들이 회전그네를 마다할수 없었다.

회전그네 또한 유희장의 경치를 바라보기에는 그저그만이여서 동포들의 기쁨은 하늘끝에

닿은것 같았다.

누가 힘장수인가?

전자오락관에서였다.

날치기사격대앞을 떠날줄 모르는 동포들이 많았다. 그가운데서도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위원장 김영녀동포의 명중률이 제일 높았다.

그가 이렇게 사격에 조예가 매우 깊은줄 몰랐다면 동포들이 감탄하는데 몇발자국 떨어진 곳에서는 류창환, 김영희동포가 승용차경기에 여념이 없었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솜씨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도 진짜 차운전대를 쥐고있은듯 몸을 돌리기도 하면서 여유작작하게 운전하고있었다. 배그네를 타면서 배멀미는 좀 했어도 승용차 운전에서는 김영희동포가 우승을 양보하지 않을듯싶었다.

한편 맞은편 오락기재에서는 누구의 힘이 더 센가를 겨루는 동포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리선동포가 련속 4번이나 타격대에 힘을 모았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오락기재현시판에는 나이도 체격도 좋은 그에게 《허약자》라는 평가가 나왔다. 동포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이번에는 김길선, 류창환동포들이 나섰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첫 타격이 가해졌다. 그들은 《늙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얼굴을 붉히면서 내 힘이 그것밖에 안되는가 또 겨루겠다고 기재앞에 나서는것이였다.

힘겨루기에서는 녀성들도 레외가 아니였다.

애국의 마음을 합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하나의 강토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며 살아온 조선민족이다.

그 하나의 민족이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렬과 국토의 량단으로 하여 오랜 세월 민족적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으며 민족의 통일적인 부강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7천만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통일하는것은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가시고 겨레를 구원하는 길이다.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야말로 최대의 애국이며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의 발현으로 된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으려는 외세의 민족분렬책동과 남조선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책동에 의해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조국통일의 문을 기어이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을 막을수 없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반만년의 력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피줄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

쳐 통일된 부강조국을 건설해나가려는 자주정신과 통일애국열의가 끊어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래 동안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 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합치고합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아무리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겹쳐들고 그 어떤 정세가 조성되어도 6. 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을 높이 들고 나가는것이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자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이다. 북남선언들은 민족자주의 선언, 대단결선언이며 새세기 평화통일강령이다.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팔씨름경기에 출전한 리금선, 김계순, 김창옥동포들은 《소년급》에서 가볍게 우승하였다.

인민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사랑

유희장의 안내원 안정숙은 동포들을 빵집으로 이끌었다.

휴식의 한때를 보낸 사람들이 간단하게 요기를 할수 있도록 소박하면서도 정갈하게 꾸려진 빵집이었다.

이어 매 사람들의 다반우에 음료와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빵이며 쏘스, 1회용식사장갑이 놓여졌다.

즐거운 다과가 시작되였다.

동포들이 저마다 유희기구를 탄 소감들을 나누고있는데 누구인가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은 밤

에 찾아오는것이 더 좋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러자 안내원은 그 말이 옳다고 긍정하여 주었다. 그는 모란봉기슭에 펼쳐지는 황홀한 불의 세계를 동포들이 보지 못하는것이 아쉽다고 말하였다.

이때 량동포가 밀쌈(간이음식)을 누가 맛보았는가고 좌중에 물음을 던졌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자 량동포는 자기는 이 동식밀쌈대에서 조선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만든 따끈한 밀쌈을 맛보았다고 하면서 이제 빵집을 나서면 배가 부르지만 밀쌈을 가져가자고 하였다.

어느덧 베스에 올라 멀어져가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그들의 귀가에 은은한 하모니카소리가 들려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청년절경축대회 대표들에게 안겨주신 사랑의 하모니카를 손에 든 문태환동포가 《애국가》의 선율을 조용히 불고있었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

그 하모니카소리에 맞추어 동포들은 합창하였다.

그들은 그날 즐거운 웃음과 조국의 노래를 뒤에 남기고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떠나갔다. 허나 그들이 가슴속에 소중한 안고간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인민을 위해 베풀어지는 조국의 사랑이였다.

본사기자 연 옥

고수, 리행하는 여기에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근본담보가 있다.

북남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 리행을 추동하기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판도에서 힘있게 벌려나가며 북남선언들을 반대하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선언리행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자주통일의 근본리념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무서울것이 없고 못해낼것이 없다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보여주는 력사의 진리이다.

온 겨레는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이 횡포해질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하며 그 리념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최우선적인 지위에 놓고 적극 받들고 옹호하며 그것을 반대하거나 거세하려는 온갖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는것이 자주에 살기를 원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앞에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통일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우리 민족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편승한 추종세력들의 동족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으로 침략전쟁의 기운이 떠돌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침략과 전쟁의 온상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다. 온 겨레는 견결한 반미투쟁에 평화와 자주통일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그 근원인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 애국의 마음을 안고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대비》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미국과 남조선반통일세력들의 무분별한 북침도발전쟁책동을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전민족의 단결은 자주통일의 근본담보이다. 조국통일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것은 민족의 화

합과 단결이다. 온 민족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을 합치고 단결하면 그것이 곧 통일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와 공동행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단체들과 인민들, 해외동포들과의 련대련합과 단결을 실현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할것이다. 북남단체들사이의 접촉과 래왕을 범죄시하며 협력과 교류를 가로막는 남조선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민족공동의 힘으로 짓부셔버려야 전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우리 민족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조국과 민족을 등진자들의 롱락물이 될수 없으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향한 시대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오늘 조국통일운동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시려는것은 그이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태양절 경축 열병식장에서 연설하시면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가실 애국애족의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이것은 기어이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할 래일을 안아오시려는 그이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는것을 보여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원수님의 령도따라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힘찬 투쟁에 서로의 마음과 힘을 합쳐나감으로써 애국애족에 불타는 조선 민족의 힘과 기상을 높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강 국

조선속담

강의성, 인내성, 참을성

—하늘이 열쪼각이 나더라도
《그 어떠한 곤난과 애로가 닥쳐오더라도》라는 뜻으로 무엇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결심할 때에 쓰는 말.
참고: 하늘이 두쪽반이 나더라도

—공부는 늙어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일생 끊임없이 학습해야 함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닭알도 굴러가다 서는 모가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돌 뚫는 화살은 없어도 돌 파는 락수는 있다

세계 내쏘는 화살은 돌을 뚫지 못하지만 여러해를 두고 쉽없이 떨어지는 락수물은 마침내 돌을 파서 움푹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나 오래도록 인내성있게 꾸준히 하면 결국 성공할수 있음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대끝에서도 삼년
아주 어려운 처지에서도 오래 참고 굳세게 견디어내는것을 이르는 말.

돈보인 무사

고려시기 외적과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함유일이라는 무사가 있었다. 평범한 군사이기는 했으나 외적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용맹한 그는 나중에는 궁궐을 호위하는 무관으로까지 등용되었다.

어느날이었다.

거리에 나왔던 그의 아들딸이 그 소식을 듣고 나는듯이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전하였다.

《어머니, 우리 집에 큰 경사가 났어요!》

《아니, 경사라니, 무슨 경사란 말이냐?》

《아버지가 임금님이 참석한 무술경기에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상으로 받았다고 해요.》

《그게 정말이냐? 너희들이 혹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니냐?》

《아니예요. 분명 아버지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그러구 군사들도 우리를 보구서 너희들이 누구의 아들딸이 아닌가 하면서 얼마나 좋겠는 가구 했는데요.》

《그래?》

《그러구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너의 아버지는 정직하구 근면하구 오직 군사일밖에 모르더니 하늘이 알아보구 그런 복을 내리게 한게 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는 <야, 너희들은 인젠 세상에 부러운게 없겠다. 그 재물이면 몇대를 두고 놓고먹어도 못다 쓸게다.> 라고 하면서 부러워까지 했는데요 뭐.》

오누이가 번갈아 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함유일의 안해도 어느정도 믿음이 갔다.

《정말 우리 집에 이제야 복이 드는게로구나.》 하면서 안해는 눈물까지 흘리었다. 식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맞을 준비로 끓었다.

해가 지고 저녁노을이 비끼려면 함유일이 대문으로 들어섰다. 온 식구가 대문가에까지 나와 그를 마중했다.

그들이 방안에 들어앉자 먼저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오늘 상이 대단하셨다지요?》

《그래, 내 일생 그런 상으로 큰 재물을 받아안긴 처음이다. 다들 부러워하고 감탄하더구나.》

《그건 언제 가져오나요?》

《그건 집에 가져오는것이 아니다.》

《예?》

가족들이 모두 의아해하였다.

《아버지가 받은 상이 아니냐요?》

딸이 물었다.

《히, 그건 내가 받았어도 내가 가지면 안되는거란다. 나는 그 재물을 팔아 군사들의 변변치 못한 화식기재들을 마련하고 그 비단도 팔아서 우리 군사들을 위해 쓰기로 하였다.》

그 말에 식구들은 말을 못하였다. 갑자기 식구들의 기색이 달라지자 함유일이 물었다.

《아니, 왜들 이러느냐? 아버지가 한 처사가 마땅치 않아 그러는 모양이구나.》

그러자 안해가 울음섞인 말로 대답하였다.

《너무하외다. 어쩌면 집안일에 아이들보다 못하시우.》

안해의 말에 히— 하고 웃음을 짓고난 함유일은 식구들을 둘러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여보, 임자도 아다싶이 나는 원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여직 누구의 방조를 받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소.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애국애민의 뜻만 잃지 않는다면 어찌 빈곤함이 걱정되겠소. 난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지 못할 걱정보다도 이런 뜻을 심어주지 못할가봐 걱정할 뿐이요.》

《...》

이날 저녁 집뜨락에는 함유일을 축하하러온 동료들과 군사들로 꽉 들어찼다.

한 친구가 함유일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말했다.

《사람은 재물을 놓고 안다고 임자는 정말 큰 인간일세.》

그 말은 참으로 옳았다.

함유일이 이런 뜨거운 마음을 지녔기에 외적을 치는 싸움마다에서 용맹을 떨쳤던것이다.

고려의 명의 설경성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의술이 능하여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중에는 고려 시기 높은 의술로 세상에 이름을 남긴 설경성(1237-1313년)도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설경성은 삼국시기 이름높은 학자였던 설총의 후손으로서 대대로 의술을 업으로 삼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의학을 배웠으며 한생을 병치료와 의학 연구에 힘을 넣었다.

당시 고려의 발전된 림상의학에 정통하였으며 환자치료를 잘하였기때문에 국내에서는 물론 국외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13세기말경에 원나라 황제가 큰 병에 걸렸을 때였다. 한다하는 의사들이 모여들어 치료를 해주었으나 차도가 없었다.

그때 원나라는 자기 나라의

한다하는 의사들은 물론이고 아라비아와 페르샤의사들도 불러왔다.

그럼에도 황제의 병은 낫지 않고 악화되었는데 그러고보면 난치의 병이 분명하였다.

백약이 무효이다보니 원나라에서는 의술이 능한 고려의학자를 초청하였다.

고려에서는 설경성을 추천하여 보냈다.

원나라에 간 설경성은 세상에 이름난 의사들을 누르고 병치료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되자 원나라 황제는 설경성의 뛰어난 의술에 탄복하여 후하게 대접하면서 성의껏 대하였다.

2년간이나 그곳에 머물러있으면서 설경성은 원나라 황제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었다.

원나라 황제는 자기 병을 고쳐준 설경성에게 집과 돈을 주

고 궁중문지기에게 지시하여 아무때나 궁중에 드나들수 있게 하였으며 그와 허물없이 바둑도 두면서 매우 가깝게 지내었다.

원나라 황제는 조국으로 가려는 설경성에게 원나라에 남아 태의(담당의사)로 될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그러나 설경성은 원나라 황제의 요구를 거절하고 끝내 고려로 돌아왔다.

이것은 설경성의 높은 의술과 함께 남달리 조국을 사랑하는 그의 애국심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설경성은 비록 임금의 총애를 받았으나 자신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줄것을 바라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환자치료와 의학연구에 전심하였다.

그는 12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리상로와 함께 고려2대명의로 알려졌다.

상 식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양력을 쓰기 시작하였는가

우리 나라에서 양력을 쓰기 전에는 음력을 써왔다. 그러다가 나라의 근대화를 지향한 갑오(1894년)개혁 후인 1895년 11월 17일부터 양력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날이 양력으로 1896년 1월 1일이였다.

따라서 그 이전의 역사적사건, 사실 등을 양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월뿐아니라 년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한 실례를 우리 민족의 고유한 글자인 훈민정음이 창제된 년대를 대표적으로 들수 있다.

그것이 창제된것은 음력으로 1443년 12월인데 양력으로는 1444년 1월로 된다.

어린이들이 즐기는 팽이치기놀이

겨울철에 어린이들이 팽이치는 모습은 정말 볼만합니다.

이 놀이에 빠진 어린이들은 썩썩 찬바람이 불어와도 추운 줄을 모르고 또 시간가는줄도 모른답니다. 그들의 놀이에 이끌려 길가던 사람들까지 걸음을 멈추고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어린이들의 그 모습에서 자기들의 유년시절을 추억하는가 봅니다.

어린이들은 대개 추위가 오기 시작할 때부터 팽이를 치군 하는데 양력설을 계기로 더욱 열기를 띠입니다.

팽이와 채만 있으면 그 어디에서나 신나게 진행할수 있어

어린이들속에서 인기가 큰 민속놀이—팽이치기,

그럼 팽이치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팽이치기는 얼음판이나 땅에서 팽이를 채로 쳐서 돌리며 노는 놀이입니다.

팽이치기는 어린이들이 겨울철에 추위를 이겨내고 몸을 튼튼히 단련하게 하며 물체운동에 대한 상식도 키워주는 놀이입니다.

팽이치기는 우리 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보급되어 지금까지 전해져내려오고있습니다. 삼국시기에 이 놀이가 이웃 나라들에까지 전해졌다는 사실

도 있습니다.

팽이의 이름은 지방마다 다르게도 부르지만 전국적으로는 팽이라는 표준어로 통합니다.

팽이치기는 팽이를 만드는것부터 시작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팽이는 흔히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데 박달나무, 대추나무, 소나무의 광술 등 무게있고 굳은 나무로 만든것을 좋은것으로 여깁니다. 무겁고 단단한 나무일수록 돌아가는 팽이의 밑부분이 빨리 무디지 않아 오래 돌릴수 있습니다.

팽이의 종류는 만드는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시습의 총명

김시습(1435—1493년, 조선 봉건왕조 전기의 문인이며 학자)은 태어난지 여덟달만에 벌써 혼자서 글을 보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시습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이렇게 총명한 그였기에 세 살부터는 사물의 리치를 꿰뚫어보면서 시를 지었는데 세살 때 지은 시들가운데는 오늘까지 전해져오는 시 한수가 있다.

복숭아꽃 붉고 버들잎 푸른
춘삼월도 저물었네
푸른 바늘에 꿰인 구슬은
솔잎에 맺힌 이슬이여라

김시습이 총명하다는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그의 집뜨락은 벌 사이가 없었다.

하루는 당시 정승벼슬을 하던 허주라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서 그를 찾아왔다. 그때 김시습의 나이는 5살이었다. 허주는 방안에서 뛰노는 김시습을 번쩍 들어 무릎위에 앉히며 이렇게 말하였다.

《자, 네가 보다싶이 나는 늙은 사람이다. 그래 어디 한번 <늙을 로> 자를 가지고 시 한 절 지어보려무나.》

김시습은 그의 말이 떨어지

자 허주를 한번 훑어보더니 곧 붓을 쥐고 단번에 시 한구절을 적어놓았다.

늙은 나무에 꽃이 피니
마음 어이 늙다 하리

허주는 시구를 보고 그만 놀랍고 신비스러워 한동안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넝름 들어 빙빙 돌며 《이야말로 세상에 생겨 처음 보는 일이로다. 너는 참으로 신동이다, 신동이야.》라고 감탄하여 마지 않았다.

웃면이 평평하고 끝은 원추형으로 뾰족하게 깎은 팽이는 거꾸로 세워놓은 팽이의 모양이 쌀을 담아 되는 말(날알의 분량을 헤아리는 용기)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여 말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제일 잘 돌아가는 팽이이므로 어린이들이 일반적으로 리용합니다.

이밖에도 팽이의 머리와 밑을 똑같이 원추형으로 깎아 아무쪽으로도 돌릴수 있는 장고팽이, 바가지조각으로 만든 바가지팽이, 팽이의 동체가 6각 원추형으로 되게 깎아 매면에 1—6까지의 수자를 써놓은 팽이, 말팽이의 머리중심을 오목하게 파고 솜이나 축을 다져넣은 다음 불을 달아 돌릴 때 연기를 피우게 한 팽이도 있습니다.

팽이를 돌리는데는 팽이채를 씹습니다. 팽이채는 길이 50cm정도되는 끈고 가는 나무끝에 무명실이나 명주실로 끈 20~25cm 정도의 노끈을 매서 만듭니다.

팽이를 처음 돌릴 때에는 먼저 팽이를 두손으로 잡고 돌린 다음 채로 쳐서 돌려야 합니다. 혹은 팽이채의 끈으로 팽이를 묶었다가 잡아채서 풀어놓으면서 돌리는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일단 팽이가 돌기 시작하면 채로 쳐서 계속 돌리면 됩니다.

바가지팽이, 수자팽이는 팽이의 중심에 쫓은 나무축을 두손바닥사이에 끼워 힘껏 비벼돌리면서 놓습니다.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놀이방법은 누구의 팽이가 오래도는가, 돌아가는 팽이를 서로 부딪치게 하여 누구의 팽이가 더 센가, 팽이를 돌리면서 정한 지점까지 누가 먼저 돌아오는가, 팽이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오래돌리기, 멀리 쳐보내어 오래돌리기 등을 겨룹니다.

팽이치기는 보통 열살을 전후한 총각어린이들이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수공업적으로 만들어 리용하던 팽이가 공업적인 방법

으로 만들어져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더욱 돋구어주고있습니다.

슬하에 자녀들을 둔 동포여러분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좋은 민속놀이인 팽이치기를 적극 장려해나가실것입니다.

양력설날 신나게 팽이치는 어린이들과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고국방문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대표단



항일혁명선열들의 넋이 깃든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참관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돌아보며



하나음악정보센터에서



릉라인민유원지에서



옥류관의 평양랭면을 맛보며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를 돌아보았다.

사진 봉사기자 방은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였다.



력사의 증견자앞에서

—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찾아서 —

얼마전 우리는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승리의 상징의 하나로 되고있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찾았다.

《푸에블로》호를 바라보는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치솟는 격분과 적들이 조국땅의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용서치 않을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이 배는 길이 53.8m, 너비



자위적인 대응조치로 배에 맞은 총탄과 포탄과편사리들

9. 8m이며 배수량이 약 1 000t인 간첩선입니다. <푸에블로>호는 <민간해양연구선> (GER)으로 위장하고 조선의 령해깊이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주체57(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조선인민군 해병들에게 나포되었습니다.》

강사 공화국영웅 박인호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배우로 올랐다.

처음 들어선 곳이 사병식당이였다. 거기서 우리는 미제의 음흉한 정탐행위를 보여주는 록화물을 보았다. 《푸에블로》호 침입경위와 나포경위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생동한 사실앞에서 참관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장교식당을 지나 함장이 있던 방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그때 배치회에 필요한 수단들과 라침판, 전화기, 개인저격무기 등이 원상그대로 있었다.

함장의 방에서 걸음을 떼지 못하는 참관자들을 강사는 무기로 이끌며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여기가 무기가입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당시 <푸에블로>호는 우리 경비정의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기관총을 마구

쏘았습니다. 그래서 자위적조치로 포탄을 쏘았는데 여기 무기가 명중되어 한명은 즉사하고 3명은 중상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적들은 겁을 먹고 서둘러 배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해병들(7명)은 배에 올라 함장을 비롯한 80여명의 승무원전원을 체포하고 배를 나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강사는 나포당시 선원들을 찍은 사진과 해도를 가리키는것이였다. 죄지은 물골을 하고 두손을 쳐든 함장을 선두로 장교들과 선원들이 한본새로 주련이 서있는 사진과 조선령해에 17차례나 침범했던 장소들이 표시되어있는 해도는 참관자들에게 적들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불려 일으켰다.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는 조선의 기질을 너무도 몰랐던 탓에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꿰이는 우리에게 강사는 당시 《푸에블로》호 나포와 관련하여 벌어졌던 조미대결전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당시 <푸에블로>호는 미국에 몇척밖에 안되는 최첨단장

포로들이 가지고있던 무기와 사품들의 일부



치를 갖춘 함선으로서 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 령해에 기여하여 각종 군사 및 국가정보자료를 계통적으로 수집해왔지만 아직 한번도 사로잡혀본적이 없는 배였습니다. 이런 배가 우리에게 나포되자 미국대통령을 비롯한 호전분자들은 <군사적보복조치>를 운운하며 그 함선은 미국공민전쟁이래 바다에서 나포된 첫 함선이다, 보복해야 한다, <푸에블로>호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등 호전적인 망언들을 연이어 내뱉으며 우리를 위협해나섰습니다. 미국은 대형항공모함들과 각종 함선들로 구성된 대기동함대를 원산앞바다에 집결시키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비롯한 방대한 무력과 수많은 비행기들을 출동태세에 돌입하게 하였습니다.》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서는 미제의 횡포성과 오만성에 철추를 내린 폭탄선언이 되새겨졌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인민과 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담할것이다.

백두산장군들의 무비의 담력

과 강철의 의지가 비낀 이 선언은 전체 군대와 인민을 반미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였으며 만약 침략자들이 무분별하게 덤벼든다면 한몸이 그대로 어뢰가 되고 폭탄이 되어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각오를 안고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언젠가 이때를 회고하시면서 그때 장군님께 최고사령관이라는 립장에서 《푸에블로》호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결심채택을 해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물음심에 장군님께서서는 미국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다고, 《푸에블로》호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항복서를 낸다 해도 돌려보내지 않고 먼 후날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후대들에게 우리가 빼앗은 미국의 간첩선이라고 말해주겠다고 힘있게 말씀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김정일동지의 그 배짱이 마음에 들었다고, 그 배짱에서 큰 고무를 받았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백두산장군들의 철의 의지와 담력, 배짱은 미국으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고 담판장에 끌려나와 사죄문을 쓰게 한 승리의 원천이었다. 우리는 정보종합실을 지나 지휘소와 12.7mm기관총이 설치된 배위로 올라가는 복도의 선체벽에 걸려있는 미륙군소장 우드워드가 미국정부를 대표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행위를 했다는것을 인정하는 사죄문에 수표하는 사진과 사죄문을 통하여 그것을 더욱더 확실할수 있었다.

돌아볼수록 《푸에블로》호는 결코 지나온 력사의 증견자만이 아니었다.

유럽의 한 인사는 《푸에블로》호를 참관하고 어제는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주체조선의 전리품으로 되었지만 또다시 미국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래일의 그 후과는 예측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

19세기에 침몰된 《셔먼》호가 20세기 《푸에블로》호의 운명을 예고했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추구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푸에블로》호보다 더한 참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우리는 더욱 똑똑히 느끼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김대철
사진 본사기자 최유성



자백서를 쓰고있는 함장 로이드 마크 부처

사죄문에 수표하는 미륙군소장 길버트 에이치 우드워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뿌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그 뿌리가 깊다.

전후에 태어난 미국사람들은 그 뿌리를 잘 모르는데로부터 조선반도핵문제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있다. 지어는 미국이 핵문제때문에 조선을 적대시하고있는것으로 잘못 알고있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였기때문에 미국이 공화국을 적대시한것이 아니라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공화국을 적대시하면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기때문에 공화국은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핵문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실시되었다. 미국은 애당초 공화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화국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뒤집어엎으려는 목표밑에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책동을 가증시켜왔다.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은 공동서랭전의 서막을 의미하였다. 미국은 이전 소련의 《남하》를 막고 유라시아대륙을 침공할수 있는 발판을 위해 일체의 패망전략에 조선반도를 가로지르는 계선을 허겁지겁 그어놓았다. 바로 그것이 38° 선이었다. 조선민족의 분렬의 불행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랭전에 립하는 미국에 있어서 조선반도의 38° 선 이남은 자기편이였고 북은 적이였다. 미국은

리념과 제도가 다른 이전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만은 외교관계수립은커녕 국호를 제대로 부르는것마저 거부하였다. 공화국이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하고 166개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의연히 공화국을 같은 국제사회안에서 공존할 상대로 여기기를 꺼려하였다.

유엔성원국 193개 가운데서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는 오직 조선, 이란, 쿠바뿐이라는 사실 하나만 통해서도 미국이 이 세나라들에 대하여 현대국제관계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얼마나 극단적인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는가를 뚜렷이 알수 있게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군사분야에 가장 력력히 뿌리박혀있다.

근대사에 전쟁을 치르고나서도 조미처럼 60여년이 되어오는 장구한 기간 교전관계에 남아있는 나라는 없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종전협정이 아니며 평화협정은 더욱 아니다.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것을 목표로한 과도적조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의도적으로 정전상태를 장기화하는 길을 택하였다. 미국은 1953년 11월 《친미적인 통일》을 실현할 때까지 정전체계를 유지하면서 남조선

을 저들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들어 전조선의 《공산화》를 방지하는것을 조선에 관한 최종목표로 규정(미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 170호)하였다. 그에 따라 1954년 6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렬시킨것을 비롯하여 미국은 조미사이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4자회담, 정전협정을 평화회담으로 바꿀데 대한 제안들을 비롯하여 공화국이 제기한 모든 안들을 외면하였다. 그리고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고 공화국을 적으로 겨냥한 《작전계획—5029》를 비롯한 조선전쟁계획들을 류형별로 짜놓고 수십년째 해마다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이름만 바꾸면서 벌려놓는 등 정전협정의 핵심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였다.

반공화국경제제재는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중요한 도구였다.

미국은 공화국이 지역안정을 위협한다는 리유, 미국의 《반테로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리유, 대량살륙무기를 전파한다는 리유, 공산국가라는 리유, 비시장경제국가라는 리유 등으로 공화국과의 무역을 극력제한하고 각종 경제제재(2011년 4월 25일 미국회조사국 보고서)를 가하고있다.

2006년 미국회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공화

서민은 《빛더미》, 재벌은 《돈더미》를 낳은 기간

지금 남조선에서는 리명박의 집권기간은 우리 민중이 거짓과 고통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똑똑히 체험한 기간이라고 하면서 《서민은 갈수록 <빛더미>, 재벌은 갈수록 <돈더미>》라는 말이 나돌고있다. 여기에는 리명박역도와 《새누리당》의 집권기간을 돌이켜보며 보수패당의 기만놀음에 환멸을 느낄대로 느낀 남조선민심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친서민정책》, 이것이 리명박역도가 집권기간 입이 닳도록 떠들어온 말이다. 역도는 말로만 친서민정책을 부르짖고 실제로는 친재벌정책으로 서민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집권 전기간 역도는 자기가 언제 《친서민》을 말했는가싶게 대기업체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친재벌정책을 강행하였다. 역도는 대기업주들의 모임인 경제인연합회를 찾아가 《마음놓고 기업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단체의 부회장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새누리당》과 결탁하여 재벌들의 세금을 본격적으로 낮추어주는데 달라붙었는가 하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재벌들의 리익을 반영한 《법안》들부터 처리하게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역도는 부정부패행위로 하여 민심의 규탄을 받고 감옥에 갇힌 대기업체의 우두머리들에게 《특별사면》을 실시하였고 대기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환률정책을 실시하면서 《정부》가 줄수 있는 거의 모든것을 재벌들에게 주는 온갖 특혜를 베풀었다.

리명박패당의 친재벌정책으로 부자들이 엄청난 돈을 긁어모으면서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을 때 이런 반인민적인 《재벌정권》하에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생을 유지해가며 몸부림쳤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이 날로 심화되는 속

에 실업자들이 거리와 골목에 차넘치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실업자로 전락되었다.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물가와 세금으로 하여 수많은 세대들이 빛더미우에 올라갔고 엄청난 집값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는 《내 집마련은 평생소원》이라는 말까지 유행되었다.

집권기간 역도가 강행한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체결은 근로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령락시키고 남조선의 농업부문을 붕괴위기에 처하게 하였다.

역도는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인민들의 생명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는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마구 끌어들이는가 하면 《새누리당》은 국회를 피터지는 판장판으로 만들면서까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강행처리하였다. 결국 경제와 인민생활은 더욱 거덜이 나고 빈궁에 몰린 수많은 사람들은 한줌도 못되는 부자들의 세상인 남조선사회를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생존권을 달라고 웨치는 무고한 인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죽음을 강요하였다. 룡산철거민학살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것이 바로 《친서민》을 광고한 역도와 《새누리당》이 빚어낸 비참한 현실이다.

오늘 남조선각계에서 울려나오고있는 《빈부격차가 극도에 달하고 재벌과 자본의 전횡속에 약자가 죽어가는 장글의 세상》, 《MB가 부르짖던 <국민대성공시대>는 <서민암흑시대>》, 《<실용정부>가 아닌 실망<정부>》와 같은 목소리들은 보수패당의 악몽같은 집권기간에 대한 응당한 평가라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국에 가하는 제재 항목 40여개 가운데서 제도가 다르다는 리유로 가하는 제재는 10여개뿐이다. 나머지 30여개 항목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

협》 등 있지도 않은 리유들을 들어 가하는 제재이다.

현실은 미국의 《적대의도가 없다.》는 말과 실천행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준다.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적대관념은 말만으로써는 없앨수 없다.

본사기자 한신애

일본의 왜왕제복귀책동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일본에서 왜왕제복귀책동이 날을 따라 로골화되고있다.

오늘날 바다건너 십나라에서 《제국》시대와 같은 국가법체계가 수립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일본에서 왜왕제가 제도적으로 고착된 시기는 19세기 《명치유신》 이후이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일본에서는 왜왕제에 의한 이중적권력구조가 유지되고있다. 뿌리깊은 파벌정치와 당리당락을 추구하는 각파들의 치렬한 개싸움으로 불안정하고 소란스러운 일본정국이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권력의 단상에 있다고 하는 집권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왜왕의 신하이다. 이로부터 찍하면 정권이 바뀌고 내각개조가 단행되는 일본에서 왜왕과 신하라는 정치구조만은 달라지지 않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일제의 패망으로 왜왕의 지위는 절대적인 《신》적존재로부터 국가주권의 상징으로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과거의 왜왕이나 현재의 왜왕이나 다 일본반동들의 정신적 및 정치적기둥이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왜왕제하에서 왕은 일본뿐아니라 《세계의 왕》이며 일본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강도적론리로부터 일본사무라이들은 《세계는 한지붕》이라는 《팔괘일우》사상을 아직까지 제창하면서 해외침략야망에 들떠있다.

이것은 《제국》시대의 왜왕제를 완전히 되살리는것이 재침

을 노리는 일본반동들이 일관하게 추구하는 목표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전후 일본반동들은 패망전의 일본이 것처럼 《강대국》으로 될수 있었던것은 왜왕이 나라를 통치했기때문이라고 설교하면서 왜왕을 《일본국의 상징》,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모든 국민이 왜왕을 받들고 지지해야 패망한 일본이 다시 《제국》으로 될수 있다는 《왜왕주의》를 집요하게 고취하였다.

왜왕을 정신적기둥으로 하여 군국주의세력을 재규합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무서운 음모는 헌법개정으로 이어졌다. 왜왕을 《비정치화》한 《국사권능》에 대한 규제를 수정하여 완전한 정치의 실권자로 만드는 《국정권능》으로 바꾸는것은 일본반동들의 헌법개정책동에서 핵심사항이다.

1950년대의 하토야마내각시기부터 시작된 개헌시도는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일본반동들은 헌법을 수정하여 상징적인 존재로 되고있는 왜왕에게 실제적인 국가통치권을 부여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통수자》의 법적지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왜왕을 중심으로 국가통치권력구조를 재정립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지난해 일본 자민당은 일본무력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고 왜왕을 국가원수로 한다는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세상에 공개하였다. 이것은 일

관덕정은 조선봉건왕조시기 개성에 있었던 8개 사정가운데 하나이다.

관덕정이라는것은 활쏘기런 습을 하던 정자이름으로 많이 불리웠으므로 이런 이름의 정자는 여러곳에 있다. 개성관덕정은 본래 자그마한 초가집정자가 있던 자리에 1780년에 규모를 늘이면서 고쳐지은것이다.

두층으로 널찍하게 쌓은 기단 위에 세운 정면 3칸(6. 85m), 측면 2칸(4. 58m)의 합각집이다. 기둥은 아래에 전체 높이의 절반만 한 화강석기둥을 세우고 그위에 나무흘림기둥을 세웠는데 돌기둥이 밑부분에서는 사각형의 주춧돌이었던것이 위로 오르면서 한모씩을 더 죽여 8각형으로 되게 한것이 펍이채롭다. 기둥사이 마루아래에 넓혀놓은 돌에 구멍을 뚫어 통풍

본반동들이 《국방군》을 부활될 왜왕제의 전쟁부속물로, 도구로 만들려는 구상을 펴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현실은 일본반동들이 군주주권과 군국주의부활에 거치장스러운 헌법조항들을 뜯어고쳐 본격적인 단계에 이른 저들의 재침책동을 공공연히 합법화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침략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 쓰디쓴 패망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일본반동들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전쟁헌법을 조작하고 배타주의적이며 호전적인 왜왕제의 《위력》으로 아시아와 세계정복의 길에 나서려는 무분별한 행동은 일본을 제2의 8. 15패망에 이끌어갈것이다.

본사기자

개성 관덕정

되게 한것도 다른데서는 보기도 못한것이다.

자남산우에 자리잡은 개성 관덕정은 예로부터 경치 좋기로 이름난 개성의 명소들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왔다.

개성 관덕정과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개성에 새로 부임하여 내려오는 류수들은 하나같이 누구의 집 재산 여부를 귀신같이 알아맞히곤 하였다.

류수는 누구네는 명주 몇 필, 또 누구네는 감나무가 몇 그루이니 감 몇 알을 바치라고 호령하여 빼앗아내곤 하였다. 백성들의 재산을 굶어오는데 이끌어난 량반들이지만 새로 부임해오는 류수마다 너무도 자기 집

세간살이를 잘 알아맞추고 꼼짝 못하고 빼앗기지 않을 수 없게 하니 이곳 량반들은 부아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어느날 류수에게 온갖 재물을 다 빼앗겨 툭툭히 손해를 본 개성의 량반들은 관덕정에 모여앉았다.

이제 오게 되는 류수는 또 어떤 것인가.

그들은 한창 궁리를 짜내며 관덕정 아래로 펼쳐지는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어느 한 량반집녀인이 물건을 옆에 끼고 다른 집으로 가더니 주인집녀인과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옆에 낀 물건을 넘겨주고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눈에 안겨왔다.

이 모양을 지켜보던 량반들 중 하나가 무릎을 탁 쳤다.

(바로 이것이였구나.)

류수들마다 관덕정에 올라와 매집의 형편을 뵈히 들여다보았던 것이다.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재간의 비결이 바로 이 관덕정에 있었다.

그후부터 개성의 룡방관속들은 신임 류수가 오면 다른 곳은 다 구경시키면서도 별의별 구실을 만들어 관덕정에만은 못 오르도록 하였다 고 한다.

그래서인지 관덕정에 오르지 못한 신임 류수들은 그전 류수들처럼 재산 굶어모으기에서 귀신같은 재간을 부리지 못했다고 한다.





ISSN 1727-9062



9 771727 906005 >